

碩士學位論文

日本語身體語彙慣用句에 대한 考察

- 現代小說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李 昌 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金 京 德

2001年 8月

日本語身體語彙慣用句에 대한 考察

- 現代小說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李 昌 益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5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세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金 京 德

金京德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1年 7月

審查委員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국문초록>

日本語身體語彙慣用句에 대한 考察
- 現代小説을 中心으로 -

金 京 德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李 昌 益

일본어를 학습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발음·문법·어휘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지만, 일상대화나 드라마·영화 등을 이해하고 소설·수필 등을 읽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일반사전에는 없거나 비록 사전에 있는 표현이라도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의 대부분을 관용구가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학습자들이 실제생활의 의사 소통에 있어 표현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올바른 관용구의 이해에 그 목적을 두고, 현대소설에 나타난 신체어휘 관용구를 크게 「頭部」 「胴体部」 「四肢部」 「全身部」로 나눠 용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관용구 중 특히 신체어휘에 관한 것이 양적인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총250개의 수집한 용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체어휘 관용구는 신체부위의 기능이나 활동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비유성을 가져 인간의 감정 등 내면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 본 논문은 200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頭部」는 인간의 사고나 감정 등을 지배하는 주요한 감각기관이 있는 곳으로 사용되는 많은 표현으로 보아 관용구 중에서도 생산적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胴体部」는 신체의 내부에 위치해 있는 것이 많아 표현이 감정이나 인간의 마음의 상태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四肢部」는 문자처럼 신체상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이 움직임이나 동작의 기능과 밀접하고 감정의 표현과는 관련성이 적다.

「全身部」는 신체의 특정부위라기보다는 전신에 걸친 성격의 것이나, 신체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관계가 있다.

특히 감정표현의 경우 전체의 32.4%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체어휘를 사용한 관용표현이 매우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 관용구 중에서 신체어휘 관용구에 한정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일본어 학습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관용구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연구의 동기	1
2. 연구대상과 방법	2
II. 신체어휘 관용구 및 신체어휘의 분류	4
1. 신체어휘 관용구	5
2. 신체어휘의 분류	7
III. 신체어휘 관용구의 부위별 용례와 분석	
1. 頭部	9
1) 頭	9
2) 顔	11
3) 眉	15
4) 目	17
5) 耳	24
6) 鼻	27
7) 口	28
8) 唇	31
9) 舌	31
10) 齒	32
11) 首	33
2. 胴体部	35
1) 胸	35
2) 腹	39

3) 腰	-----	41
4) 背	-----	42
5) 臍	-----	43
6) 肝	-----	44
3. 四肢部	-----	45
1) 肩	-----	45
2) 腕	-----	47
3) 手	-----	48
4) 尻	-----	51
5) 足	-----	52
6) すね	-----	54
7) 踵	-----	55
4. 全身部	-----	55
1) 身	-----	56
2) 骨	-----	58
5. 그 외의 신체어휘관용	-----	59
1) 頭部	-----	60
2) 胴体部	-----	60
3) 四肢部	-----	60
4) 全身部	-----	61
IV. 결 론	-----	62
참고문헌	-----	67
Abstract	-----	71

I. 서론

1. 연구의 동기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동양문화권에 속하는 언어이면서 양쪽 모두 다른 말을 사용하고 또 각각의 표현법도 다르다. 하지만 언어의 표현은 다르더라도 그 언어 내면에는 같은 인간으로서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에 공통성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그 결과 우리들은 친근감을 갖고 상대언어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언어를 외국어로서 습득해 가는 과정에서 그 언어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들을 간단하게 익히기는 어렵다.

일상생활에서 문법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잘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관용표현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目の黒いうち」라는 관용표현을 파란 눈의 외국인에게 사용하면 저항을 느낄 수도 있으며, 「この食べ物足が早いね」라는 표현을 보고 ‘음식물이 상하기 쉽다’라는 의미를 바로 연상하기는 힘들 것이다.

관용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서로 결합하거나 상응하여 그 전체가 고정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문법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전달이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관용구의 이해는 그 언어의 습성을 익히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本稿에서는 신체어휘 관용구의 의의와 분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소설 속에 나타난 사용빈도수가 높은 신체어휘 관용구에 대하여 사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과 방법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신체어휘를 사용한 관용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音声言語에서는 일상회화·강연·라디오·TV 등을 생각할 수 있고, 文字言語에서는 신문·잡지·소설·시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신체어휘 관용구는 사용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많은 자료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일본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용례를 모아 설명하기로 한다. 일본 문학작품 중에는 『友情』 『坊ちゃん』 같은 뛰어난 것들도 있지만,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작품 역시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들이다.

용례를 수집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三浦綾子 (1999) 氷点-上
- ① 三浦綾子 (1999) 氷点-下 (朝日文庫)¹⁾
- ③ 三浦綾子 (2000) 続・氷点-上
- ④ 三浦綾子 (2000) 続・氷点-下 (角川文庫)²⁾
- ⑤ 浅田次郎 (1999) 地下鉄に乗って (講談社文庫)³⁾

-
- 1) 1964년 朝日新聞創刊 85주년 기념 1천만엔 현상모집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원수의 딸을 데려다 키우는 설정으로 미움과 갈등, 사랑과 저주가 연속되는 이야기이다. 주제는 원죄와 용서로 요코의 고백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빙점이 무엇인가를 감정의 변화와 함께 잘 묘사하고 있다.
 - 2) 『氷点』의 속편으로 1971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 3) 1995년 제16회 吉川英治文学新人賞을 수상한 작품으로 浅田次郎을 세상에 알린 작품이다. 일에 지치고 가족을 갈등을 안고, 인생에 몹시 지친 중년의 셀러리맨이 체험하는 시간여행 이야기로, 주인공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증오하고 경멸하던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잃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의지와 발로 이제부터 살아갈 것이란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다.

- ⑥ 浅田次郎 (2000) 鉄道員 (集英社文庫)⁴⁾
- ⑦ 浅田次郎 (2000) 活動寫眞の女 (双葉文庫)⁵⁾
- ⑧ 浅田次郎 (2001) 天国までの百マイル (朝日文庫)⁶⁾
- ⑨ 吉本ばなな (2000) キッチン (角川文庫)⁷⁾
- ⑩ 吉本ばなな (2000) ハチ公の最後の恋人 (中公文庫)⁸⁾
- ⑪ 吉本ばなな (2000) ハネムーン (中公文庫)⁹⁾
- ⑫ 吉本ばなな (2001) TUGUMI (中公文庫)¹⁰⁾

수집한 신체부위 관용구를 신체부위별로 분류, 실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어느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수집한 용례에 나타나있지 않은 신체어휘 관용구나 부위에 대해서는 『國語慣用句大辞典』 『広辞苑』 등에 있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 4) 1997년 제117회 直木賞을 수상한 작품으로 「鉄道員」외 「ラブ・レラー」 「悪魔」 등 8편의 단편을 수록한 작품집이다. 곧 폐쇄될 운명에 처해 있는 작은 간이역에서의 직업정신이 투철한 老역장 이야기, 야쿠자 밑에서 밥벌이를 하는 건달이야기, 직장에서 밀려난 셀러리맨, 그리고 세일즈맨 등 사회 주변의 변두리 인생을 그린 소설집이다.
 - 5) 1997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영화광인 두 남학생이 영화촬영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나게 된 활동사진의 여자. 그녀로 인해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사건들과 영화계의 산 중인으로 촬영소 창고지기를 하고 있는 쓰지노인의 기억에 묻어난 가슴 아픈 사연들의 이야기이다.
 - 6) 1998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사업에 망하고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버림받은 주인공과 심장병과 사투를 벌이는 어머니가 고물차를 타고 천국까지의 100마일을 달리면서 나눈 이야기 - 어머니의 사랑, 얼굴을 모르는 아버지 이야기, 지금은 서로 외면하지만 예전의 단칸방에서의 행복하게 살던 형제들 이야기 - 등의 감동 깊은 내용이다.
 - 7) 1988년에 발표한 작품집으로 「ムーンライト・シャドウ」는 일본예술대학 졸업작품으로 예술학부장賞(1987)을, 「キッチン」은 제6회 海燕新入文学賞(1987), 泉鏡花文学賞(1988), 이탈리아의 스칸노賞(1993)을 수상하기도 했다. 「満月」은 「キッチン」의 후편격으로, 이 작품집의 기본적인 테마는 '상처집기'라고 할 수 있다.
 - 8) 1994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할머니가 남긴 유언 '너는 ハチ의 마지막 연인이 될 거다'라는 유언처럼 'ハチ'라는 남자와 연인이 된다. 신비로운 예언으로 시작되는 연인들의 기이한 만남과 이별의 이야기이다.
 - 9) 1997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소년 ひとし와 옆집에 사는 소녀 まなかの 우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사랑과 꿈이 필요한 10대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 10) 198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제2회 山本周五郎賞을 수상하였다. 병약하고 건방진 듯한 미소녀 つぐみ와 주인공인 내가 고향에서 마지막 여름을 같이하게 되는 한 소년을 만나고, 소녀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애뜻한 이야기이다.

II. 신체어휘 관용구 및 신체어휘의 분류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신체는 각자의 생명과도 관계가 깊으며, 또한 상대방에게 주는 첫 인상을 좌우하게 되는 것도 신체부분에 관련된 면이 크다. 신체에 관련하여 渡辺吉鎔¹¹⁾은

身体は、實際は単なる「モノ」でもなく、また情神を圧倒してしまう存在でもない。人間にとって身体は自分自身そのものである。どの文化でも、外界のとらえかたや自身の感情は、身体感覚として表現されている。人間は自分をとりまく環境、すなわちそれが、大自然であろうと社会や無生物であろうと、身体で考え、身体を投射して認識しようとしてきた。

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신체는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언어 영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수많은 어휘 중에서 신체와 관련을 갖는 어휘를 ‘신체어휘’라 하며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체를 이용한 표현에 대해 石野博史¹²⁾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身体部分を表す語を用いた慣用表現はけっこう数が多い。これは当然なことであろう。古くから和語の名称にしる、比較的に新しい漢語の名称にしる、身近ということから言えば、身体部分の名称ほど身近なものもないわけである。その身近なものを用いた慣用表現が多いのは、はなはだ自然なことである。

오래간 만에 만난 친구에게 「やせましたね」「膚が白くなりなしたね」와 같은 인사를 하는 사회도 있지만, 상대의 신체를 빗대어 말하는 것은 실례되는

11) 渡辺吉鎔(1998), 「韓国言語風景」, 岩波新書, p.80.

12) 石野博史(1989), “身体に関する慣用表現”, 「日本語教育」33号, 明治書院, p.31.

사회도 있다. 그것은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각 언어마다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다른 다수의 언어에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비슷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감정에 관한 경우는 외국인에게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종종 있다.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특히 신체로 인식하는 경험을 비유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일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서로 다른 언어·문화·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에 입각하여 가능한 딱 들어맞게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는¹³⁾ 아마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일 것이다.

1. 신체어휘 관용구



「慣用句」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여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두개 이상의 단어가 一連하거나 또는 相應하여 사용되어 그 결합이 전체로서 어떤 고정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¹⁴⁾, 連語나 文의 형태로 항상 일정한 형식으로 사용되고 그 전체로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¹⁵⁾이다.

관용구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신체어휘를 사용한 표현은 상당히 많다. 인간은 누구나 같은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신체부위에 관한 명칭은 사회·문화·생활방식·사고방식 등에 따라 다르다. 신체어휘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많은 어휘 중, 신체와 관계를 갖는 것으로 원래는 생리적 기능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실질적 의미보다는 비유적인 개념과 다양한 내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13) アグス スヘルマン スルヤディムリア(1999), “日本語・インドネシア語における体語彙慣用句の比較研究”, 『日本語論究』6, 和泉書院, pp.314~315.

14) 国語学会(1982), 『国語学大辞典』, 東京堂出版, p.207.

15) 日本語教育学会(1982), 『日本語教育辞典』, 大修館書店, p.310.

대해 星野命¹⁶⁾는

身体語彙による表現とは、人間の身体に関する語彙のうち、直接身体・その部位を指示する名称(身体用語)の名称を一部または全部借用しながら、身体の状態・活動を直接指示するというよりは、むしろ別の状態や活動を暗示し描写する表現のことである。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신체어휘에 의한 표현 즉, 신체어휘 관용구는 신체 또는 일부를 가지고 형태적·기능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인과적으로 야기시키는 사항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에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체어휘의 암시적, 비유적 의미가 문화나 역사적 배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일본인에게는 간단한 의미의 표현이라도 異文化의 외국인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예를 들면, 「怒る」라는 감정을 일본인은 「腹が立つ」라고 표현한다. 한국에서는 「속이 끓는다」로 표현되고 영어로는 「get angry」로 표현되는 등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보통 화내는 것은 「頭」, 「顔」, 「目」에 나타나는 것으로 가르치는 사회에서 자란 외국인은 화내는 것과 「腹」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¹⁷⁾.

여기에서 전체 관용구 중 신체어휘 관용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森田良行은 전체의 23.4%(總句數 1,806項 중 421項目), 宮地裕의 「常用慣用句一覽」에서는 전체의 32%(1,280項目 중 410項目)¹⁸⁾가 신체어휘 관용구가

16) 星野命(1976), “身体語彙による表現”, 『日本語講座四卷 日本語の語彙と表現』, 大修館, p.155.

17) 宮地裕(1993), 「慣用句の意味と用法」, 明治書院, p.248.

18) 林八龍(1988), “日・韓身体語彙慣用句の比較対照のための基礎研究”, 『논문집』, 제21집, 한국외대, p.276.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등 상당한 비율을 갖고있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체어휘 관용구는 그 수만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신체어휘의 분류

신체어휘의 범위는 견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和田節는 “신체어”라고 하는 용어를 기본적인 신체부위를 포함하는 어휘 외에 “눈물, 땀, 침, 방귀, 똥, 숨”¹⁹⁾까지를 신체어휘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梶野命는 신체어휘를 신체와 그 부위를 지시하는 것 이외에도 “신체부위는 아니지만, 거기서 파생된 힘, 열, 아픔, 피, 눈물, 콧물, 땀, 때, 침, 구역질, 똥, 숨(호흡)등을 신체어휘에 의한 표현에 넣어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²⁰⁾” 라고 하면서 신체에서 나오는 분비물 내지는 감각까지 신체어휘 범위에 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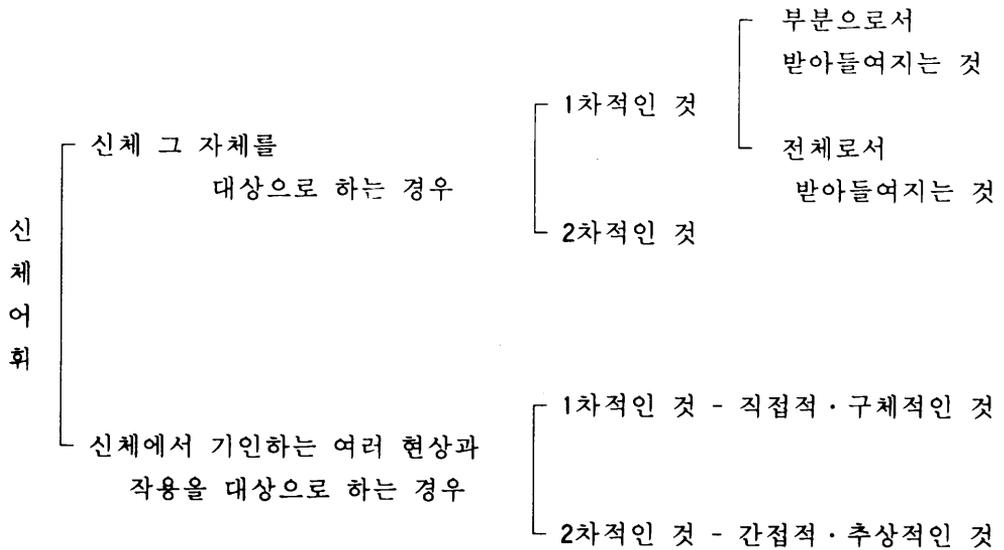
신체어휘 범위에 이렇게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형태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梶野命는 신체어휘에 의한 표현을 크게 「형식적분류」 「형태, 음절에 의한 분류」 「의미에 의한 분류」²¹⁾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林八龍은 크게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신체에서 기인하는 모든 현상이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그것을 각각의 특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²²⁾.

19) 和田節(1969), “からだことば考”, 『思想の科学94号』, pp.93~94. ; 金相敏(1997), “韓·日語 対心慣用語句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외대, p.19에서 재인용.

20) 梶野命(1976), 전계서, p.155.

21) 상계서, pp.168~170.

22) 林八龍(1988), 전계서, p.273.



이 중 「신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1차적인 것」 중에서 「부분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頭部 · 胴体部 · 四肢部」로 나누고, 「전체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全体部」로 하여 그 구체적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1) 頭部 : 頭 · 顔 · 髮 · つむし · 額 · 眉 · 目 · ほお · 耳 · 鼻 · 口 · 唇 · 舌 · 齒 · あご · ひげ · 首 · 喉
- 2) 胴体部 : 胸 · 心臟 · 肺腑 · 肝 · 胃 · 腸 · 腹 · 臍 · 腰 · 背
- 3) 四肢部 : 肩 · 腕 · ひじ · 手 · 指 · 爪 · 掌 · 尻 · 足 · 股 · ひざ · すね · きびす
- 4) 全身部 : 身 · 血 · 骨

本稿에서는 분비물과 감각 등을 제외하여 위의 분류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Ⅲ. 신체어휘관용구의 부위별 용례와 분석

1. 頭部

「頭部」는 인간의 최상위부로 인간의 사고나 지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뇌를 비롯하여, 「目・耳・鼻・口」 등의 주요한 감각기관이 집중해 있는 부분이다.

1) 頭

「頭」는 頭部 중에서도 「顔」의 부분과는 다른 「腦」를 갖고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頭」의 내부에는 「腦」가 있어 인간의 사고나 감정 등 모든 知覺이나 감각을 담당하고 있다.

- (1) 「もう、いいわ」陽子が、かすかに頭を横にふった (氷点-下 p.312)
- (2) 肉親よりも心を推してくれたのだと思うと自然に頭が下がった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40)
- (3) よう頭も下げんけど、内心はあんたに詫びてるでね (うらぼんえ p.230)
- (4) 何年いっしょにいるんだよ、少しは頭を使えよ (TUGUMI p.71)

일본어의 「頭」는 顔面을 포함한 頭部를 가리키는 것이 기본적인 용법이다. (1)의 「頭」가 이 의미로 동의하지 않거나, 부정·부인을 할 때 이같은 행동을 보인다. (2)는 강제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경우로 상대에 대한 감사·경의를 표현하고 있으며 문맥에 따라서는 (3)처럼 사과·사죄·인사의 의미도 갖고 있다. 「頭腦」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4)는 사고를 가지는 곳으로서의 「頭」로 사용되고 있다.

- (5) (あんな恐ろしいことを、おれは.....) 啓造は机の上に頭を抱えた (続・氷点-上 p.6)
- (6) 陽子の言葉に、北原はうれしそうに頭をかいた (続・氷点-下 p.131)
- (7) さっきから聞いてりゃ、ぜんぜんちがうんだよ。頭にきた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206)

「頭」는 어떤 감정이 지나가는 길목으로서도 사용되는데 (6)의 「頭をかく」는 창피하거나 말문이 막힐 때 나오는 행동으로 창피 내지는 불안함을 나타낸다. (7)은 한국어의 경우 일본어처럼 「頭」라는 신체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열 받다’처럼 감정의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고 있다.

● 「頭」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사고력		1
태 도	부인	1
	사과·경의·인사	2
감 정	괴로움	1
	부끄러움·쑥스러움	1
	분노·노여움	1

인간이 신체를 구성하는 부위인 「頭」를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를 大月実는 ‘인간이 감각기관의 거리가 집중하고 있는 머리는, 인체를 제어하는 중핵인 뇌를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정신이 머무는 곳으로 파악 할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²³⁾.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頭」에는 사고력(頭がいい), 기억(頭に入れる), 사람 수(頭をそろえる), 사고방식(頭が固い), 겸손(頭が低い), 거만(頭が高い), 처신(頭の上のはえも追えない), 어리석음(頭を隠して尻を隠さず), 출가(頭を丸める), 인간비유(頭の黒いねずみ), 가로챘(頭をはねる)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23) 大月実(1987), “慣用語にあらわれた身体”, 「言語生活」, 筑摩書房, p.41.

관용표현이 있다.

2) 顔

「顔」안에는 「目」이나 「鼻」 「口」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들이 각각 「見る」 「呼吸をする」 「ものを言う」 라는 생리적인 의지와 신체적 행위의 기능을 하는 개별적인 기관인 것에 비해 「顔」은 그와 같은 기능은 없고, 「見せる」 「見られる」를 위한 「看板」으로서 사람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⁴⁾.

- (8) 「伽羅」には、週一度か二度の割合で顔を出しただろうか (伽羅 p.187)
- (9) このごろちっとも顔を見せないわ (氷点-下 p.168)
- (10) 旧知の人間とは誰であれ顔を合わせたくなかった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26)
- (11) その晩だけ顔を揃える親類や知人の子供らと、パーティのはねるまう思うさま遊ぶことができたのだ (悪魔 p.101)

안면은 그 인물의 간판으로서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인간처럼 취급되기도 하는데, (8)과 (9)처럼 인사차 방문하거나 모임에 출석하기 위해 얼굴을 보이는 것이 만남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その問題と顔を合わせることを避けていたのだ’ 에서 알 수 있듯이 (10)의 「顔を合わせる」 상대는 사람이나 동물에 한하지 않고 있다²⁵⁾. (11)의 「顔を揃える」는 예정된 또는 필요한 사람이 모두 모인다는 의미로, 만남보다는 그곳에 모인 사람 수에 중점을 두는 표현이다.

- (12) 何くわぬ顔をして、三井とそのまま今日まで、しあわせに暮していました

24) 林八龍(1998), “日・韓身体語彙慣用語の対照考察 I”, 「일본연구」, 제13호,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p.292.

25) 中村明(1977), “比喩の中の日本人”, 「ことばと文化」,三省堂, p.53.

(続・氷点-上 p.177)

- (13) 今、陽子は必死にそ知らぬ顔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続・氷点-下 p.98)
(14) 子供って、知らん顔をしていても、ちゃんと考えているのね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260)
(15) 「何かご用でございましたか」 夏枝がけげんな顔をした (続・氷点-下 p.53)
(16) 涼しい顔をしているわけにはいかないことがあるのかもしれない (ハネムーン p.67)

「顔」은 안면의 일시적인 상태 즉 풍부한 표정을 갖는 곳으로 「~顔」의 표정은 몸 전체의 행동, 즉 태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한국어의 경우는 ‘~척(체)하다’ 와 함께 사용된다. 「~顔」의 부분이 관용적인 비유로 단순히 표정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것은 (24), (25), (26), (29), (30)에 나타나 있다.

- (17) そして、若く美しい顔をじっと僕に凝した (悪魔 p.111)
(18) 撤は答えずに、ちらりと啓造の顔をうかがった (氷点-上 p.295)

얼굴이나 안색에 관심을 가짐으로서 인간의 감정을 살피려는 표현으로, 「顔」은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그 사람의 내면세계나 심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거울로서의 「看板」이며²⁶⁾, 이러한 점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인격을 나타내는 개념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 (19) そのうえ警察にも顔が利くんだから (地下鉄に乗って p.128)
(20) 銀座の客だって肚の中は同じさ。ツラの皮が厚いだけだ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28)

안면이나 표정과는 달리 체면이나 명예의 의미로서, 「顔」은 본래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향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 주의 할 필요

26) 林八龍(1998), 전계서, p.293.

가 있다. (19)는 간판으로서의 「顔」에 교제범위나 세력면에서 그 사람의 존재가 영향력을 가진다는 표현이다. 類義表現으로는 「顔が広い」「顔が売れる」등이 있는데, 어떤 일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顔が利く」가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다²⁷⁾. (20)은 체면을 차리지 않는 뻔뻔함의 의미를 가지는 데 ‘ツラ’는 현대어의 「顔」에 비해 멸시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21) 順子はまだ、顔を赤くしている (続・氷点-下 p.25)

(22) 徹は自分でも驚いたらしく、顔をあからめてさっさと二階にかけ上ってしまった

(氷点-下 p.102)

(21), (22)는 곤란하거나 부끄러움, 쑥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나타나는 표정으로 한국어로는 ‘얼굴이 화끈거리다’의 의미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23) 村井を見舞おうといわれて、夏枝は顔をくもらせた (氷点-上 p.190)

(24) 徹のいまの態度が気になって、夏枝は浮かぬ顔をした (続・氷点-上 p.162)

(25) そんなしんき臭い顔はしないの (続・氷点-上 p.8)

(26) 啓造は思案顔になった (氷点-上 p.102)

(27) 村井の顔がくもった。「いや、あれは死にましたよ」(氷点-下 p.81)

위의 예들은 슬픔, 우울, 걱정을 「顔」의 표정으로 나타내고 있다. (23)과 (27)은 날씨를 예로 들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기분이 좋지 못한 상태를 비유하여 ‘저기압이다’라는 표현하고 있다.

27) 宮地裕(1993), 전제서, p.50.

- (28) 撤は、自分自身も痛むかのように顔をしかめた (氷点-上 p.207)
- (29) 啓造はしぶい顔をした (続・氷点-下 p.326)
- (30) 「ふーん、戦争映画かい」啓造はいやな顔をした (氷点-上 p.19)
- (31) 茶一と目が合うと、女はきまってチェツと舌打ちをして、顔をそむけた (角筈にて p.132)
- (32) 手の甲で唇を拭くお時の顔は青ざていた (地下鉄に乗って p.171)
- (33) 顔をゆがめて泣き入れた (地下鉄に乗って p.109)
- (34) 夏枝と村井のことを辰子は知っていたのかと、啓造は顔をこわばらせた
(続・氷点-上 p.140)

위의 예는 모두 불쾌한 감정, 두려움, 공포감을 얼굴의 표정에 나타내고 있다. (28)은 얼굴을 찡그리면 눈썹이 모이고, 미간에 주름이 보이는데 불쾌한 감정을 「眉」에서 간파하는 듯 하다. (32)는 두려움, 공포감으로 인한 찡기가 없는 안색을 표현하고 있다. 「顔がまっ白・顔がまっ青」가 한국어에서는 ‘얼굴이 새하얗다·얼굴이 새파랗다’와 상통하는데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顔」은 「頭」의 前面部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目」나 「口」처럼 신체의 한 기관과는 성격이 다르고 그것을 직접 움직이게 하거나 동작과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顔」에 의한 감정의 표현법은 주로 얼굴의 생리적 방식과 상태의 변화에 대한 형용을 많이 볼 수 있고²⁸⁾, 감정이나 심리상태는 놀람이나 공포,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 「顔」에 대한 의미분석

28) 林八龍(1998), 전제서, p.294.

의 미		수
사람의 얼굴 (낮)	출현·등장	2
	만남	1
	사람수	1
표정과 태도	시치미	3
	의아함	1
	뻔뻔함	1
	관심·주시	2
인간관계	신용·지명	1
	체면	1
감 정	부끄러움·쑥스러움	2
	걱정	4
	슬픔	1
	불쾌	4
	두려움·공포	2
	분노·노여움	1

얼굴(顔)은 사람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시선이 가는 곳으로 뭐니뭐니해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顔」은 대외적 관계에서의 개념과 깊은 관계가 있고, 「顔」의 다양한 표정에 의해 내면의 감정과의 관계가 큰 듯하다.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顔」에는 체면(顔に泥をぬる·顔をつぶす·顔を立てる), 창피(顔に紅葉を散らす), 화장(顔を拵える·顔を直す), 나섬(顔を貸す), 관계(顔をつなぐ)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3) 眉

「眉」는 「顔」의 표정과 함께 움직이는 부분이므로 「顔」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대부분이다. 용례는 그리 많지 않아 용법은 한정되어 있다.

(35) 助った、というふうに飛行服の少年は眉を開いた (地下鉄の乗って p.108)

「眉を開く」라는 것은 불안에서 해방 된 얼굴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욱 강하게 의미를 말하자면 이러한 마음이 맑아져서 기쁠 때에도 사용하며²⁹⁾, 「愁眉を開く」라고도 한다.

(36) いやなことをいう男だと啓造は眉をよせた (氷点-下 p.83)

(37) しわくちゃの千円札を受け取って、おふくろは眉をひそめた (ろくでなしのサンタ p.246)

(38) 自分を咎めるいい方に夏枝は眉をくもらせた (続・氷点-下 p.170)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쾌하여 얼굴을 찡그리게 되면, 양 눈썹사이에 주름이 생겨 결국 양미간을 찌푸리게 된다는 뜻으로, 위의 예문 모두 타인의 싫은 행동에 대해 얼굴을 찡그리는 불쾌·불만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에서는 ‘눈살을 찌푸리다’로 표현하고 있다.

● 「眉」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마음상태	안심	1
감 정	불만·불쾌	3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眉」에는 다급함(眉に火がつく), 조심성(眉につばをぬる), 분노(眉を上げる), 결혼(眉を落す)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29) 秦恒平(1984), 「からだ言葉の本」, 筑摩書房, p.104.

4) 目

「目」을 사용한 표현은 「頭部」 중 아주 많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시각이다’라고 하였는데 눈만큼 대상을 잘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은 없고 또 사람은 정보의 8, 9割을 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³⁰⁾. 일본어에 「目」에 관한 관용구·속담·상징이 「耳」나 「鼻」에 관한 것보다도 압도적으로 수가 많은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9) 陽子はいぶかしそうに、手渡された写真に目をやった (続・氷点-上 p.16)

(40) 母は英子のやさしさを思い起こるように、ほの暗い天井に目を向ける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48)

「目」의 기본적인 직접적인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見る」이다. 「見る」 행위는 사물을 인식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이고, 그 다른 행위보다도 사실적이고 확실한 수단이다³¹⁾. (39)와 (40)은 어떤 것에 대해 관심이나 흥미를 갖고 시선을 대상물 방향으로 돌리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우는 물론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41) 「北海道旅客鉄道」のプレートに目を止めた (鉄道員 p.11)

(42) 思わず駆け出そうとしてクラクションにはねのき、もういちど目を凝す (角筈にて p.129)

(43) 高木が立上がったが、啓造はカニから目を離さなかった (続・氷点-下 p.233)

(44) 私はそれとなく店内を歩き回って、ラックに吊るされた商品に目を配った (伽羅 p.168)

(45) 啓造はそれに目を走らせていった (氷点-下 p.285)

(46) さっきの男の子に目をつけたんでしょ (TUGUMI p.79)

30) 大月実(1987), 전계서, p.42.

31) 林八龍(1998), 전계서, p.284.

인간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대상을 접하게 되면 그 쪽을 향하여 보는 습관이 있다. (41)부터 (46)까지가 이러한 예로 주의·주시하며 관심을 보이는 표현이다.

(47) 光ったものは、机の中にしまって、日にふれるところにはおかなかった (氷点-上 p.111)

(48) 一瞬、啓造と夏枝は日が合った (氷点-上 p.17)

(49) 祐次は良枝から日をそむけて車窓を振り返った (オリオン座からの招待状 p.267)

(50) 無垢な瞳を正視できずに私は日をそらした (伽羅 p.181)

(51) 陽子は困惑して、日をひざにおとした (続・氷点-下 p.329)

위의 예는 모두 시선의 의미이지만 (48)은 또 다른 뜻 ‘마음이 맞아 서로 통하다’라는 의미도 가진다. 이 경우 한국어로 ‘눈이 맞다’로 남녀의 애정관계에 대해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49), (50)은 차마 그대로 볼 수 없거나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회피하는 모습, (51)은 당황, 곤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선·눈길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진다.

(52) 陽子ちゃんもそろそろ男の人の日につく歳ですからね (氷点-下 p.144)

(53) 誘拐ならだれかの日にとまるはずですわ (氷点-上 p.32)

(54) 頭髮も薄くなり、生えぎわには白髪も日立つ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10)

(55) ワイパーの合間に、いきなり白い夜光看板が日に入った (伽羅 p.166)

보이는 것 중에서 특히 어떤 것에 끌리는 것으로 (52)의 「日につく」는 시선을 이동시키는 도중 어떤 것이 눈에 띄어 보인다는 의미이다. 반면 (53)은 심리적으로 끌린다는 뉘앙스가 있어 심리와 관계가 있다. (54)는 일반적으로 다른 것과 구별되어 사람의 주의를 끈다는 의미를 가진다³²⁾. 「見え

32) 宮地裕(1993), 전계서, pp.214~215.

る」의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日に入る」이다.

위의 예들 중 「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見る」에 해당하는 것은 「日をやる・日を向ける・日を凝らす」「日をとめる・日にふれる」, 「見える」에 해당하는 것은 「日に入る・日につく・日に立つ・日に止まる」로 나눌 수 있다.

(56) この頃は、日に見えるマッサージ師が多いですからね (続・氷点-上 p.101)

(57) 二人が死んでいるのをみて、ろうばいする啓造の顔が日に浮んだ (氷点-上 p.228)

(58) このまま進めば結末は日に見えていた (伽羅 p.188)

(56)은 실제로 볼 수 있는 시력의 의미이지만 (57), (58)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듯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57)은 단순히 머리 속에 모습만 떠올리는 의미, (58)은 앞으로 일어날 일, 결과에 대해 상당한 확실성을 갖고 예상하는 것으로 「火を見るより明らかだ」와 같은 의미로 한국어에서는 ‘불 보듯 뻔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59) 命がけの苦しい日に合ったことを、情容赦もなく、聞くもんだよ (氷点-下 p.20)

눈이 만나는 대상인 사람에서 추상적 사건으로 전이됨으로써 경험, 체험, 상태 등을 나타내는데³³⁾, (59)는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한국어의 ‘~꼴을 당하다·~지경이 되다’에 해당한다. 수집한 자료에서는 「苦しい日に合う」 외에도 「ひどい日に合う・辛い日に合う・不幸な日に合う・痛い日に合う」 등의 표현³⁴⁾도 있다.

(60) 優子さんは日が高いわ。今じゃ銀行の支店長婦人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181)

33) 洪思満(1992), “韓・日慣用的表現의 対照研究”, 『어문논총』 26호, 경북어문학회, p.186.

34) ひどい日に合う(氷点-上, p.56), 辛に日に合う(氷点-下, p.196), 不幸な日に合う(続・氷点-上, p.16), 通い日に合う(続・氷点-上 p.223)

(61) あなたは絵をおかきになるから、ごらんになる目がおありですね (続・氷点-下 p.255)

(60), (61)은 분별력·감식력·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目」으로 사물의 가치나 결과를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어로는 '보는 눈이 있다·안목이 있다'처럼 표현할 수 있다. 무엇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이다.

(62) 啓造は人目をひく夏枝と歩いているだけで、誇らしく、自分のようなしあわせ者はいないように思われた (氷点-上 p.117)

(63) 僕の生家は、山の手の邸宅街の中でもとりわけ目をひいた (悪魔 p.89)

(64) わざわざ人目を避けるようにしていた (活動寫眞の女 p.182)

(65) 陽子がパッチリとした目を光らせて、話を聞いている (氷点-下 p.67)

타인의 관심도 본인의 관심도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目」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피한다는 심리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6) これくらいの道楽は目をつむってくれ (地下鉄に乗って p.76)

(67) そのまま目をつぶって捨ててしまえば? (ハネムーン p.48)

(68) 小母さんは再び主人に目をくばせをした (氷点-下 p.95)

(69) 何の楽しみもない所だから、目をくら立てて取締っていうものねえ (ラブ・レター p.67)

(66)은 '묵인하여 눈감아 주다', (67)은 '단념하다'의 의미로 쓰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죽다'의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68), (69)는 묵인과는 정반대로 눈짓으로 주의를 주거나 어떤 결점을 찾아내려는 강경한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70) みんながじろじろと白い目で見えます (地下鐵に乗って p.219)

(71) 入社したときは、おれの目の黒いうちは幌舞線は守るだとか (鉄道員 p.15)

(72) 目がすわってきつくなっていた (ハチ公の最後の恋人 p.106)

(70), (71)은 비유성이 강한 표현으로, '白い目' 자체에 냉담한 미움, 증오의 눈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目の黒いうち」의 「目」은 「瞳」을 가리키는데, 눈동자 색깔이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서 '생존 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³⁵⁾. 하지만 이 표현을 '青い目'의 외국인에게 사용하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³⁶⁾. 반면에 (72)는 눈의 움직임이 없는 죽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73) 生き馬の目を抜く業界の伝統は、先輩たちから綿綿と申し送られていた (伽羅 p.189)

(74) 家族の目を盗んでは兄を連れ出した (地下鐵に乗って p.62)

동작·행동과 관계 있는 표현으로, (73)은 살아있는 말의 눈을 빼낸다는 것은 그 만큼 행동이 민첩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어의 '눈감으면 코 베어간다'와 상통한다. (74)는 남의 눈을 피한 조심스러운 행동의 의미로 類義表現으로 「目を掠める」가 있다.

(75) 目と鼻の先の映画館に行つて、知らん顔もできんだろう

(オリオン座からの招待状 p.259)

「目」과 「鼻」가 아주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생긴 표현으로, 한국어에서 이러한 표현은 '엎드러지면 코 닿을 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

35) 中村明(1985), "慣用句と比喩表現", 『日本語学』, p.32.

36) 中村明(1977), "語の意味と固定連語の扱い", 『日本語教育』 33号, 明治書院, p.48.

이 넘어졌을 때, 신체부분 중에서 「鼻」가 가장 먼저 땅에 닿는다는 점에서도 연상할 수도 있다.

(76) お初にお目にかかります、ちえ子の祖父です (うらぼんえ p.221)

‘눈에 걸리다’ 즉 ‘만나 뵙다’의 「目」은 만남이라는 내포적 의미를 지녀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관련이 있다.

(77) おっしゃった次の言葉には、はっと目がさまされたような気がしました(続・氷点-上 p.320)

(78) 目から鼻へ抜けるという表現がぴったりの聡明さだった (活動寫眞の女 p.16)

(77)의 경우는 놀라움의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에 대한 자각, 깨달음의 의미를 가진다. (78)은 빠르다는 비유적 표현에서 빠른 이해력, 총명함의 의미를 가진다.

(79) 夏枝はその村井の胸に倒れこみそうな自分を感じて目をふせた (氷点-上 p.9)

(80) 一瞬、私は女の美しさに目を奪われて、そのさきの言葉を忘れた (伽羅 p.169)

(81) 「すばらしい眺めだ」と、北原が目を細めた (氷点-下 p.162)

(82) 人間の意志をつく自然の姿の、陽子は目を見はらずにいられなかった

(続・氷点-下 p.365)

(83) 大の男が目を丸くして押し載く時代である (地下鉄に乗って p.168)

(84) 「自殺」恵子の目が大きく見ひらかれた (続・氷点-上 p.176)

(85) 死んだと思った途端にバット目がさめて、なんだ夢だったのか (氷点-下 p.58)

(86) 表情ゆたかな目をくるとまわし、あるくいらんだ (氷点-上 p.152)

「目」의 표정은 마음의 심오함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

뵤, 분노를 나타내거나 놀라거나 의심할 때의 표정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들은 감동, 감격, 놀람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83)의 「目を丸くする」은 강한 놀람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 놀람 속에 가치평가를 거의 하지 않지만, (82)의 「目をみはる」은 플러스의 가치평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³⁷⁾.

(87) じっと雲を見ている順子の目が次第にうるんだ (続・氷点-下 p.24)

(88) 高木がうれしそうに目を輝かせた (氷点-上 p.121.)

(89) おい、辻口、あいつが一人だと、お前、目ざわりなんだろう (続・氷点-上 p.304)

일본어에 있어 「目」에 의한 감정이나 심리묘사는 아주 다양하여 (87)은 슬픔, (88)은 기쁨, 희망에 가득 찬 표정을 나타내고 있다. 또 (89)는 눈에 비치는 모습, 상황, 모양 등이 보기에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 할 때의 불만 표현으로 눈에 비치는 것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目」은 「目は口ほどに物を言う」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顔」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또 인간의 신체부위 중에서 미묘한 표정이나 움직임에 의해 직접 외부 세계를 향하여 내부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知覚기관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감정표현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 「目」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보는기능	시선	7
	관심·주목	10
	회상	1
	시력	1

37) 宮地裕(1993), 전제서, p.225.

보이는 결과		1
경험		5
안목·판단력		2
타인의 시선·관심		4
태도와 자세	묵인·단념	2
	주의·주시·감시	2
	냉담	1
생사		2
동작·행동		2
거리		1
대인관계		1
깨달음		1
총명함		1
감정	부끄러움·쑥스러움	1
	감탄·감동	3
	놀람	4
	슬픔	1
	기쁨	1
	불쾌·불만	1
		55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目」에는 판단(目がくらむ), 분노·방심(目が据わる), 영리함(目から鼻へ抜ける), 충격(目から火が出る), 바쁨(目が回る), 꾸짖음(目に物を見せる), 귀여움(目に入れても痛くない), 보복(日には目を歯には歯を), 적시(目の敵にする), 당황(目を白黒させる), 묵인(目をふさぐ)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신체어휘에 의한 관용표현 외에도 「目」은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目的, 目前, 日次, 五目そば등이 있다. 이것은 영어나 다른 언어에는 없는 일본어의 특징이다. 일본인은 시각민족이므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한다. 즉, 일본인은 「目の文化」인 것이다³⁸⁾.

5) 耳

38) 立川昭二(2000), 「からだことば」, 早川書房, p.18.

신체부위로서의 「耳」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듣는 일’이다. 종교에 있어서도 大仏의 큰 귀, 유다·그리스도교에 있어서의 신의 말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도 알 수 있듯이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듣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어³⁹⁾, 「聞く」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90) 順子も、老人の言葉を耳にとめたのか、静かにつぶやいた (続・氷点-上 p.51)

(91) 耳を澄ませばチェロの音色とともに潮騒が聴こえた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219)

(92) 男たちのたんでな会話に耳を傾けている (天国百 p.180)

(93) 徹はギクリとして耳をそばだてた (氷点-上 p.281)

(94) こういうことかと思ひながら、啓造の足音にきき耳を立てていた (氷点-上 p.231)

(95) こっそりタイトルを教えていてやる。耳かせ (活動寫眞の女 p.177)

위의 예는 전부 주의, 관심을 갖고 듣는 자세를 나타낸 것인데 (91)의 「耳を澄ませば」는 주로 실제 소리에 대해, (92)의 「耳を傾ける」는 소리보다는 무엇인가의 화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대해 (94)의 「耳を立てる」는 중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⁴⁰⁾.

(96) そんな名医なら噂ぐらいは耳にするだろう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89)

(97)今はもう、夏枝の耳にははいらなかった (氷点-上 p.329)

(98) 京都弁のはしばしに残る知的な物言いが、耳に残っていた (活動寫眞の女 p.39)

「耳にする」와 「耳に入る」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듣는 것을 의미하는데, 듣는 기능이나 들리는 작용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의 「聞く」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98)의 「耳に残る」도 들은 것에 대한 여운의 의미를

39) 大月実(1987), 전계서, p.43.

40) 宮地裕(1993), 전계서, p.198.

가지고 있어 듣는 행위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99) おれが耳を揃えて金を返すまで、生きて下さい。(天国までの百マイル p.95)

「耳」에 대하여 한국어에는 ‘귀 달린 만 원’⁴¹⁾이 있어 적은 액수의 의미를 갖지만, 일본어의 경우는 돈을 갚는데 돈의 모서리를 다듬어야 될 정도인 의미인 만큼 큰 액수의 의미가 들어 있는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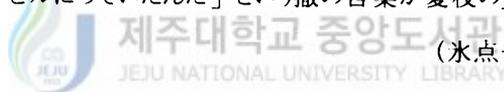
(100) 夏枝は不吉な予感に胸が激しく鳴った。耳をふさぎたかった (氷点-上 p. 330)

(101) 厳格で陰湿な家庭教師の話を、僕は耳にタコができるほど聞かされた (悪魔 p.93)

(102) ラジオを消すと、細く流れる水音が耳に障った (鉄道員 p.23)

(103) 「え? 本当ですか。先生」 由香子は自分の耳を疑った (続・氷点-上 p.225)

(104) 「アサヒ・ビルにうっていたんだ」という撒の言葉が夏枝の耳をうった
(氷点-上 p.274)



「目」이나 「口」이 얼굴의 표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耳」는 표정과는 무관하고 실제 관용구표현에서도 감정과 관련된 것은 그다지 많이 찾아볼 수 없다. 위의 예들도 직접적으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기보다는 심리적인 범위에 그 영향이 미쳐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100)은 거부적 태도와 관련하여 괴로움, (101)과 (102)는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듣거나, 들어서 거슬리는 느낌이 드는 불만·불쾌, (103), (104)는 믿을 수 없을 때의 놀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耳」에 대한 의미분석

41)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 사전」, 어문각, p.513.

의 미		수
경청태도	주의·관심	6
듣는 것		2
여 운		1
금전관계		1
감 정	괴로움	1
	불만·불쾌	2
	놀람	2
		15

「目」이나 「口」가 얼굴의 표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耳」는 표정과는 무관하여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관용표현은 많지 않다.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耳」에는 불쾌(耳が痛い・耳に逆う), 청력(耳が遠い・耳が近い), 빠른 정보(耳が早い), 알림(耳に入れる), 감상력(耳が肥える)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6) 鼻

신체부위로서의 「鼻」의 주된 기능은 ‘호흡을 하는 것’과 ‘냄새를 맡는 것’이다. 일본어의 경우 「鼻」는 그 자체의 기능과 관련된 관용표현은 적다. 「鼻」는 자기의 존재에 관해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고 무엇보다도 자존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105) 懐かしいポマードの匂いが鼻をついた (角筈にて p.156)

어떤 냄새가 코를 강하게 자극한다는 냄새맡는 「鼻」의 본래 의미로 쓰인 것이다.

(106) 「ばか」と母は鼻で嗤った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197)

(107) 測るような目付きで真次を見つめ、ふんとを鼻を鳴らした (地下鉄に乗って p.147)

‘자만심 내지는 자존심으로 상대방을 깔보고 비웃다’라는 뜻으로 한국어의 ‘코웃음을 치다·콧방귀를 꾸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鼻を鳴らす」는 여성적인 표현이라 해도 좋을듯하다⁴²⁾.

● 「鼻」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냄새맡는 기능		1
감 정	비웃음·경멸	2
		3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鼻」에는 냄새(鼻がきく), 자신·자만(鼻が高い), 악취(鼻が曲る), 好色(鼻の下が長い), 자랑(鼻にかける), 싫증(鼻につく), 손해(鼻を欠く), 놀람(鼻をあかす), 어둠(鼻を掴まれても分らぬ)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7) 口

「口」는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口」의 주된 역할은 뭐니뭐니해도 ‘말을 하는 곳’과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요약된다.

(108) なんなら持ってきますけど、旦那のお口に合わんでしょ (地下鉄に乗って p.112)

(109) それに働きのいかなきゃ、口がひあがってしまいますからね (氷点-上 p.54)

42) 秦恒平(1984), 전계서, p.94.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곳’의 역할처럼 (108)은 먹어서 음식물이 기호에 맞는다는 의미이며, (109)는 생계의 의미를 가지는데 한국어의 ‘입에 풀칠하기 어렵다’와 상통한다.

- (110) ぼくはとっさに背いて口を合わせた (活動寫眞の女 p.95)
- (111) 兄たちは口を揃えて「それ見たことか」と言ったが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33)
- (112) だが、死者の悪業を口にする者はいなかった (伽羅 p.196)
- (113) 自分もマリの存在を口に出して、笑い合えたと思う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261)
- (114) 他人の商売に口を出さないのは業界でも暗黙の掟だった (伽羅 p.188)
- (115) 後にも先にも、私が仲間の商売に口を挟んだのはその一度きりだった (伽羅 p.193)
- (116) 要は口さえ堅ければ良い (ラブ・レター p.51)
- (117) うっかり口をすべらせて、その計画は狂った (続・氷点-上 p.173)
- (118) しかし次子と徹が入ってくるのをみると、口をつぐむより仕方なかった (氷点-上 p.81)
- (119) 自分が次第に狂暴性を帯びてくるのに気づいて口を閉じた (氷点-下 p.112)
- (120) 人を避けなくなったり、親とろくに口をきかなくなる時期があるものだ (氷点-下 p.105)
- (121) 辰子と二人つきりだと気づくと、啓造は沈黙をおそれて口をきった (氷点-上 p.62)

‘말하는 곳’이라는 「口」의 역할로 쓰인 예들이지만 각각 조금씩 다른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10)과 (111)은 ‘입을 맞추다’의 의미로 쓰였지만 전자는 이야기 내용이 틀리지 않도록, 후자는 내용보다는 동시에 말을 한다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 또한 (113)은 생각하고 있던 일을 말로서 하는 의미이고, (114)는 자신이 의견을 말해서는 안될 곳에서 참견하는 의미로, (115)의 「口を挟む」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116)은 신중을 기하며 말을 아끼는 표현으로 한국어의 ‘입이 무겁다’와 같다.

「口」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言う」행위에는 「口にする・口に出す・口を出す・口を揃える」, 「言わない」행위에는 「口をつぐむ・口を閉じる」로 나

눌 수 있다. (120)과 (121) 역시 「言う」의 의미로 특히 (121)은 처음으로 시작, 발언한다는 의미로 특히 공격적인 마음 일 때는 「砲門を開く」라고도 한다.

(122) 「お客さんは、会いもしないで人を嫌いになるんですか」小女は口を尖らせた

(続・氷点-上 p.59)

(123) 足元を見つめて口をおおい、良枝はようやく言った (オリオン座からの招待状 p.279)

「口」는 인간내부의 감정을 직접외부에 표현하는 기관이기도 하여 표정이 나 움직임에 의해 극히 제한된 일부의 감정을 나타낸다. (122)는 불만, (123)은 부끄러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口」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먹는 것	입맛	1
	생계	1
말하는 것	내용일치	1
	언급	3
	참견	2
	신중	1
	경솔	1
	침묵	2
	말의 시작	2
감 정	불쾌·불만	1
	부끄러움·속스러움	1
		16

수집한 용례의 이외의 표현에도 ‘말하는 것’과 ‘먹는 것’에 관한 관용표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달변(口がうまい), 과묵(口が重い), 억지(口が滅らない), 속임수(口に乗る), 말조심(口は禍の門), 만능(口も八丁手も八丁), 권유(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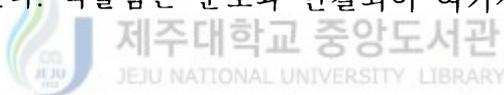
をかける), 주의(口を慎む), 자백(口を割る), 생계(口をぬらす・口を糊する), 빈곤(口食うて・杯)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8) 唇

일본어의 입술은 불평, 후회, 자책, 분한 감정이 실리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

(124) 夏枝はうつむいたまま、唇をかんでいた (氷点-下 p.107)

입술에 대한 용례는 「唇をかむ」 하나만 발견되었는데, 한국어로는 ‘입술을 깨물다’라는 표현과 상통하며 ‘억울함이나 고통을 참거나 결의를 다지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억울함은 분노와 연결되어 여기서는 분노의 의미를 가진다.



● 「唇」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감 정	분노·노여움	1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唇」에는 험담(唇を返す), 불만(唇をとがらす), 수다(唇がうすい), 비난(唇をひるがえす)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9) 舌

「舌」는 말을 할 때 쓰이는 발음기관인데, 「舌」를 가진 관용구는 그다지 생산성이 높지 않다.

(125) その舌の根もかわかんうちに、そんな子を引きとるなんていい出すのも、おれには納得
 がいかな (氷点-上 p.102)

(126) サトシは舌打ちをして、吾郎を突き放した (ラブ・レター p.72)

(125)의 「舌」은 말과 관련해서 말이 끝나서 또는 발언해서 얼마 되지 않아 전에 말한 것과 마치 반대의 것을 말하거나 행하거나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26) 역시 말과 관련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불만을 「舌」에 담아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舌」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시간경과		1
감 정	불쾌·불만	1
		2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舌」에는 수다(舌が回る・舌が長い), 비방(舌を出す), 감언이설(舌先でこまかす), 달변(舌柔らかなり), 감탄(舌を卷く), 놀람(舌を翻す)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는데 말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10) 齒

「齒」는 입안에 있어, 말하는 의미와 연관이 있을 듯하나, 그 보다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27) 決して笑わぬ長い顔も、齒に衣させぬ物言いも、くしゃくしゃと音と立てて咀嚼する癖も、
 すべてが我慢のならぬものだった (悪魔 p.99)

(128) 血管を拡張するそうした療法では、まったく齒が立ちません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37)

비유적으로 사용된 표현으로 (127)은 ‘이야기’의 의미로 이야기에 덧붙이지 않고 있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할 때, (128)은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129) その顔が真青だった。歯の根が合わずにふるえている (氷点-ト p.37)

(130) 怒りと情なさで、ちえ子は奥歯を噛みしめた (うらぼんえ p.204)

(131) 何とか歯を食いしばってリバイバルかけ続けましてん (オリオン座からの招待状 p.284)

「歯」에는 기쁨, 감동 등 플러스적인 감정표현은 없고 위의 예처럼 두려움에 떨거나 분함, 억울함을 이기지 못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대부분이다. 한국어에도 ‘이가 떨리다’, ‘이를 악물다’와 같은 표현이 있는 정도로, 한정된 감정을 나타내는데 그치고 있다.



● 「歯」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태 도	솔직함	1
능 력		1
감 정	두려움·공포	1
	억울함·분함	2
		5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歯」에는 불쾌(歯が浮く), 허전함(歯が抜けたよう), 친함(歯の根も食い合う), 분노(歯を出す)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11) 首

「首」은 인간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생명 그 자체의 상징처럼 인식된

다.

(132) 「葉が効いてるのかな」「さあ」と、看護婦は首を傾げた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17)

(133) 「どこへ進学するか決めたの」陽子はだまって首を横にふった(氷点-下 p.245)

(132)는 의문, 의심스러움의 기분을 담는 모습, (133)은 부정, 반대의사의 완곡한 표현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다.

● 「首」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의사표현	의문·의심	1
	반대·부정	1

일본어의 경우 「首」를 사용하고 있는 동작이나 행위의 예를 보면, 「首を揃える」「首が回らない」등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로 疑問이나 賛否의 반응과 관련 있는 표현에 집중되었다.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首」에는 해고(首が飛ぶ・首にする・首になる・首を切る), 관여(首を突っこむ), 궁리(首をひねる), 기다림(首を長くする)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頭部」에 속하는 부위에는 인간의 사고와 지각·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위가 모두 모여 있는 곳이다. 수집한 용례에서는 「目・顔・口・耳・頭・歯・眉・鼻・舌・首・唇」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고, 전체의 54.8%나 차지하고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부위들은 본래

의 의미는 물론 비유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首」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는 「頭部」중 32.4%를 차지하고 있고, 분노·노여움, 괴로움, 감탄·감동, 부끄러움·속스러움, 놀람, 슬픔, 기쁨, 불쾌·불만, 비웃음·경멸, 억울함·분함 등 인간의 ‘喜怒哀樂’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다.

2. 胴体部

인간의 「胴体」는 순환기나 호흡기, 소화기 등의 인간의 ‘五臟六腑’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는 신체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외부 세계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거나 직접적인 感知器官으로서의 성격은 없다⁴³⁾.



1) 胸

「胸」은 胸部기관으로서의 심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문학작품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정이 담긴 마음을 대신하는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134) あの子は苦しまずに、胸を張って生きていくかも知れない (氷点-下 p.290)

가슴을 펴 자세를 바르게 하는 모습에서 자신감·당당한 자세의 의미임을 알 수 있으며 한국어로 ‘가슴을 펴다’의 의미이다.

(135) 兄たちとその配偶者の冷やかさを胸に刻んでいる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123)

(136) 撤には、この重大な秘密を、一人胸におさめておきたかった (続・氷点-上 p.166)

43) 林八龍(1999), “日・韓身体語彙慣用語の対照考察Ⅱ”, 『논문집』, 제31집, 한국외대, p.132.

(135)는 교훈적인 일이나 사항에 대해 말하지 않고 추억이나 말 등을 잊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이지만, 類義表現인 「肝に銘じる」는 감동적인 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136)은 걱정거리를 마음에 두어 말하지 않거나 입밖에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비밀로 하는 경우로 「胸をたたむ」라고도 한다.

(137) 言葉にしようとする_と消えてしまう_{淡い}感動を私は胸にしまう (キッチン p.59)

(138) 別段何のなやみも、問題もなく_{聞く}説教もにはさ_{して}て、胸にひびくものはなかった

(氷点 - 下 p.8)

(139) 陽子は胸がいっばいで食欲がない (氷点-下 p.211)

(140) 曾我の声は百マイルの彼方から聞こえる汽笛のように、安男の胸を打った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210)

(138)과 (139)는 설교의 내용, 상대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음을 「胸にひびく」 「胸を打つ」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국어로는 '가슴에 와 닿다', '감격시키다'라고 한다. (137)은 전에 느꼈던 것을 간직하려는 마음으로 그 밑바탕에는 역시 감동이 깔려있다. (139)의 경우는 흥분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감동이나 기쁨이 넘치고 있음의 의미를 가진다.

(141) 陽子は男文字の度に北原邦雄からではないかと胸をおどらせた (氷点-下 p.201)

(142) 香典袋にしるされた名は三井恵子だった。徹の胸がときめいた (続・氷点-下 p.163)

(143) 達筆の宛名を見たとき、吾郎の胸は熱くなった (ラブ・レター p.81)

(144) 胸を高鳴らせて、この危険なゲームのとりこになっていた (地下鉄に乗って p.157)

(145) やあ、やっと胸のつかえがおりた (鉄道員 p.33)

(146) いつになく明るい顔色に、安男は胸を撫でおろした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144)

(141)부터 (145)까지는 기쁨·기대의 표현이다. (141)의 「胸を踊らせる」는

기쁨, 걱정, 불길한 예감 등으로, (142)의 「胸がときめく」는 기쁨·기대에만 사용되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146)은 생각대로 일이 풀리거나 안도하는 모습으로 그 내면에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47) 村井という名が、今ほど痛く啓造の胸につきさったことはなかった (氷点-上 p.119)

(148) おぼつかなく階段を降りる姿を思っ、陽子は胸が痛んだ (続・氷点-下 p.192)

(149) 夏枝の胸が次第に苦しくなってきた (氷点-上 p.313)

(150) 胸が切り裂かれるように痛かった (ハネムーン p.33)

(151) 吐き棄てるようにそう言ったとたん、胸がつまった (角筈にて p.141)

(152) 村井の一言が啓造の胸を刺した (氷点-下 p.81)

(153) ふいに啓造の胸が不安にとどろいた (氷点-上 p.335)

(154) 村井を通したことに夏枝の胸がさわいだ (氷点-上 p.105)

위의 예들은 정신상태를 「胸」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른 관용표현에 비해 「胸」에 괴로움, 불안 등의 의미를 갖는 관용표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154)의 「胸が騒ぐ」는 ‘마음이 동요하다. 가슴이 뛰다’라는 뜻으로 한국어의 ‘흥분’의 경우에는 쓰지 않고 ‘불안’의 경우에만 사용한다.

(155) 怒りと嫉妬が、吐瀉物のように胸につかえた (オリオンからの招待状 p.265)

(156) おれだって思い出せば胸くそ悪くなる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125)

(157) 異臭を嗅きながら、真次は胸が悪くなった (地下鉄に乗って p.112)

(158) 「大変って?」陽子は胸が波立った (続・氷点-上 p.317)

(159) その言葉に、夏枝ははっと胸を打たれた (続・氷点-下 p.63)

(160) 啓造は無邪気に喜ぶ撒をみると胸をつかれた (氷点-上 p.82)

(161) 啓造は摧ける膝を支えて身を屈めた。胸がつぶれてしまった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128)

(162) 陽子のはかすかに笑った。胸に沁み入るような淋しい微笑だった (続・氷点-上 p.18)

(163) にじむような明るさで、くつきりと胸にせまって見えた (TUGUMI p.29)

인간의 감정은 심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장이 있는 「胸」을 사용한 감정표현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155), (156), (157)은 분노, 불쾌·불만의 감정을 (158)부터 (163)까지는 놀람,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다. (160)의 「胸をつかれる」는 동기가 마이너스인 것, (161)의 「胸がつぶれる」는 「胸をつかれる」와 비슷하지만 동기의 내용이 좀더 무겁고 지속적인 것으로44), 한국어로는 ‘가슴이 미어 터지는 듯한’으로 주로 슬픔이나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사용된다.

● 「胸」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태 도	자신감·당당함	1
	교훈·비밀	2
마음상태	안심	1
감 정	감동·감탄	4
	기쁨·기대	5
	피로움	6
	걱정·불안	2
	분노	1
	불쾌·불만	2
	놀람	2
	슬픔	4
		30

「胸」에 감정에 관한 표현이 다른 것보다도 많은데 감정이란 것은 인간의 내부세계에 있어 마음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은 「顔」이나 「目」「口」등 표정을 나타내는 신체부위에 의해서도 나타낼 수 있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胸」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어

44) 宮地裕(1993), 전계서, p.203.

올리는 듯 하다.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감정의 표현 외에도 「胸」에는 도량(胸が狭い), 心中(胸に一物), 벽참(胸に余る), 생각(胸に手を置く), 초조(胸を焦がす)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2) 腹

「腹」에는 다양한 비유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⁴⁵⁾ 인간의 의지나 감정을 숨기는 부위라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164) お腹がぺこぺこなの。順子さんもお腹がすいているでしょう (統・氷点-下 p.19)

(165) 腹がへって、悪態もつけないんだろう (悪魔 p.120)

「空腹」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라’보다는 ‘오なか’가 고상함을 느낄 수 있다. (164)의 ‘ぺこぺこ’는 공복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얇은 금속판 등이 패이는 소리나 그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온 말이다⁴⁶⁾.

(166) 腹をいためた子ならともかく、もらってまで育てることはないですよ (氷点-上 p.94)

「子を産む」라는 출산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배다른 형제’ 즉 「腹違い」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腹」은 일본도 한국도 생명을 갖는 곳으

45) 新村出 編(1995), 「広辞苑」, 岩波新書, p.2102. ; ①動物体で、頭・胸に続きそれらと尾との間にある部分。②背に対して、体の前がわ。③胃腸。おなか。④子のやどる母の胎内。⑤こころ。かんがえ。本心。⑥胆力。度量。⑦物の中央の大きい部分。物のふくらんだ所。⑧かめなど胸部のふくらんだ器物を数える語。

46) 権益湖(1999), “身体語彙「腹・胸」に関する韓日慣用表現”, 「일본연구」, 제14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200.

로 여겨지고 있다.

(167) 安男の肚は決まっていた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103)

(168) 妻はよほど肚を据えて真次のすさんだ心をんだめようとしているにちがいない

(地下鉄に乗って p.186)

(169) 黙秘を決めるほかはあるまいと吾郎は肚をくくった (ラブ・レター p.53)

위의 예는 결심·결의의 의미로 비장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腹を固める」라는 類義表現이 있다. 浅田次郎의 작품에서는 「腹」과 「肚」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170) 何だか夏枝にはほんろうされているようで、腹が立った (氷点-上 p.317)

(171) 様子を見せないことに、夏枝は腹を立てていた (氷点-下 p.223)

(172) こらえきれない、というように腹をかかえて笑いこぼれた (TUGUMI p.25)

「腹」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을 숨기는 부위라는 점에서는 「胸」과 같은데, 「胸」이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腹」은 ‘喜怒哀樂’ 중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172)은 ‘분노’의 감정은 아니지만 비웃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 「腹」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공 복		3
출 산		1
결심·각오		3
감 정	분노·노여움	2
	비웃음	1
		10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腹」에는 도량(腹が大きい), 담력(腹が太い), 우스움(腹がよじれる), 폭음폭식(腹も身の内), 본심(腹が黒い・腹を割る), 사직(腹を切る), 심중추측(腹を見抜く・腹を読む)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腹が煮える・腹に据えかねる・腹の虫がおさまらない」처럼 「腹」에는 분노, 노여움에 대한 감정표현 이외에는 보기가 힘들었다.

3) 腰

「腰」는 신체를 지탱하는 부분으로서, 신체의 움직임이나 자세와 직접 관계가 있는 부위이다. 일본인은 「腰」를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立つ・座る」의 기능과 관계가 있다.

(173) 年配の医者に腰をかがめてやりすごしてから話を続けた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101)

(174) ちえ子は夜通し庭の縁台に腰を下ろして, 仔犬と遊んだ (うらぼんえ p.226)

(175) 高木はラジュエーターに腰をかけて煙草に火をつけた (氷点-上 p.131)

(176) 高木のあぐらの中に小さな腰をすっぽり落とした (氷点 - 上 p.21)

(177) 村井が話の腰を折るように立上がった (続・氷点-上 p.154)

(174), (175), (176)은 일어서고 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腰」의 기본적인 신체상의 기능으로 동작이나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腰をあげる・腰を据える」처럼 동작이나 태도, 행위와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개시, 침착함의 암시적·상징적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177)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구부린다는 의미에서 ‘굴복한다’라는 의미와 ‘사람의 이야기를 중간에서 방해하여 이야기 흐름을 끊는다’라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를 가진다.

(178) 孤独と絶望とを補って余りあるほどの、腰の抜けたような安息だった (悪魔 p.116)

「腰」의 경우 감정표현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어 놀람 이외에는 그다지 사용되고 있지 않은 듯 하다. (178)은 「腰」를 놀람의 반응기관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으며 類義表現으로서는 「肝をつぶす」가 있다.

● 「腰」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태도와 자세	경의	1
	앉는 것	3
이야기 중단		1
감 정	놀람	1
		6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腰」에는 거만(腰が高い), 겸손(腰が低い), 기세(腰を入れる), 행동력(腰が強い・腰が弱い), 휴식(腰をのばす), 정착(腰を落ち着ける)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4) 背

「背」는 다른 부위에 비해 극히 수가 적으며 의미 또한 마이너스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179) 陽子はくると背を向けて茶わんをふきはじめた (氷点-下 p.159)

(180) 当の本人が電話口に出たら、と考えると、背筋が寒くなった (地下鉄に乗って p.49)

상대에게 「背」를 보이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데 (179)는 등을 돌림으로서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암시적으로 ‘배반하다’

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180)은 심한 공포감에 휩싸일 때의 표현으로 한국어로는 ‘등골이 오싹해지다’와 상통한다.

● 「背」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태 도	무관심·냉담	1
감 정	두려움·공포	1
		2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背」에는 고통, 괴로움(背をよる), 관심(背に腹はかえられぬ)의 의미를 가지는 관용표현이 있는 정도이다.

5) 臍



(181) すぐ背にそ曲げよる (活動寫眞の女 p.123)

옆을 향하여 「臍」의 모양을 찌그러뜨리는 의미에서 바르지 못한 성격의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다.

● 「臍」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토라짐		1

「臍」가 사용되는 관용표현은 5개에 한하고 있으며⁴⁷⁾, 그 의미 또한 비

47) 白石大二(1988), 『国語慣用句大辞典』, 東京堂出版, p.389.

웃음(臍で茶を沸かす・臍がくねる)등 마이너스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6) 肝

(182) なんか、肝がすわってるっていうかね (キッチン p. 164)

「肝」는 '精神·心'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의 예는 '배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肝」는 内部에 있는 것인 만큼 동작이나 행위 보다는 인간의 내면정신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肝」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배 짱	1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肝」에는 핵심(肺腑を突く), 담력(肝が据わる・肝が大きい・肝が太い), 주의(肝に銘じる), 놀람(肝をつぶす・肝を消す・肝を抜かれる), 무서움(肝を冷やす), 감동(肝に染みる), 흥미(肝も興も醒める), 괴로움(肝を砕く・肝をなめる・肝を焼く)등의 의미를 가진 관용표현이 있다.

「胴体部」에는 인간의 '五臟六腑'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수집한 용례에서는 「胸·腹·腰·背·臍·肝」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고,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胴体部」 중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으로 「頭部」에 나타난 감정표현 외에 걱정·불안, 놀람의 표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집한 용례에 없는 「腸」 등의 관용표현과

같이 생각 해 보면 「胴体部」는 인간의 내면적 정신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四肢部

「四肢」란 문자 그대로 인간의 양손과 양쪽 다리를 가리킨다. 게다가四肢는 손과 발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手足」의 의미로도 사용 할 수 있다.

1) 肩

인간은 「肩」의 동작이나 행위를 통해 어떤 종류의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 점은 관용표현 안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본인은 신체중에서 특히 「肩」에 대해 의식이 강한데, 이는 江戸時代の 「肩がよい・肩が悪い」라는 身体語에 거슬러 올라가는데 「肩」을 둘러싼 인생의 運・不運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⁴⁸⁾.

(183) 二人の男が肩を怒らせて現われた(地下鉄に乗って p.105)

(184) 何がおいしいのか、内弟子が肩をすくめて笑った(続・氷点-上 p.221)

(185) 乙松は振り返ることができずに、肩を落として椅子に座った(鉄道員 p.41)

(186) 安男は肩をすぼめて息をついた(天国までの百マイル p.93)

신체 부위로서의 「肩」는 (183)처럼 외견상 위세, 힘의 상징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183)은 어깨를 펴고 사람을 위압하는 듯한 태도를 의미한다. (184), (185), (186)은 직접적으로 「肩」로 나타내는 행위에서 의아함, 실망,

48) 立川昭二(2000), 전계서, p.73. ; 閻魔様の右肩に男、左肩に女が居座る。そして、閻魔様の隣りで男の神様は良いことを書き、女の神様は悪いことを書く。

체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87) あなたはあちらさんの肩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のですわ (続・氷点-下 p.116)

(188) さすがに三百四十キロは強行軍だったな。いざさか肩がこった (続・氷点-上 p.93)

(189) ほくね、母の肩をもんだ経験ってないでしょう? (氷点-下 p.155)

일본인이 어깨에 각별하게 강한 의식을 갖고 있는 증거로, 「肩でナントカ・肩をドウカ」라는 표현이 아주 많다⁴⁹⁾. 그 대표적인 것이 (187)의 「肩を持つ」이다. 「持つ」에는 「負担する」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부담을 대신에 가진다 라는 점에서 「味方になる」 「ひいきにする」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肩」은 피곤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으로서, (188), (189)는 응축된 피곤함과 그 피곤함을 푸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190) やだなあ、私、学校で肩身せまいよ (地下鉄に乗って p.201)

(191) 内科医としては肩の荷がおりた感じです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40)

(190)은 남 보기에 떳떳하지 못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반대의 뜻으로는 「肩身が広い」가 있다. 한국어에서도 어떤 일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네 어깨에 달려있다’라든가 ‘어깨의 짐이 무겁다’라고 표현하듯이, 일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肩」는 책임,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다. (191)은 책임, 부담이 없어진 상태 즉 기쁨의 감정에 연결된다.

- 「肩」에 대한 의미분석

49) 塩田丸男(1998), 『人体表現読本』, 白水社, p.137.

의 미		수
태 도	위압	1
	의아함	1
	실망	1
	체념	1
지지·지원		1
피로·피곤		2
면목·체면		1
감 정	기쁨	1
		9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외에도, 지지·지원의 類義表現으로 「肩を入れる・肩を貸す」가, 책임·부담(肩が抜ける), 대등한 기량(肩を並べる), 경멸(肩で笑う)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2) 腕

「手」와 연결되어 있는 부위로 그 의미 또한 대부분이 일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2) うちの工場の、とっても腕のいい職人さんなんです (地下鉄に乗って p.222)

「腕」역시 「手」처럼 신체부위를 가리키기보다는 작업이나 일을 하는 부분으로서의 암시적 의미가 강하여, (192)는 그 방면에 뛰어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 「腕」의 의미분석

의 미		수
기술·솜씨		1
		1

이 외에도 「腕」에는 자신감(腕が鳴る), 방관(腕を拱く), 기량연마(腕をさする・腕をみがく), 솜씨(腕が上がる・腕を振う)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3) 手

「手」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⁵⁰⁾, 「手」는 단순히 쓰고 무엇을 잡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手」의 관용표현에서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면,

(193) 「いやいや」と、保夫は手を振った (角筈にて p.147)

(194) けえるように、白い手を合わせて辰子を拜んだ (続・氷点-上 p.132)

「手」에 의한 관용표현은 입장이나 태도 표명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손으로 하는 행동에 의해 암시적인 의미로 바뀌어 (193)은 부정·부인을 (194)는 기원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5) おれも少し手を考えてみるけど。あんまり期待しないでな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21)

(196) どんな手を使っても、廃墟の中から富をすくい取りさえすれば (地下鉄に乗って p.157)

(197) きっと服装学院まで手を回して、姑息なやつだよ (地下鉄に乗って p.97)

(198) 手をつくして汚くふるまうつぐみが見える (TUGUMI p.58)

여기서의 「手」는 수단·방법의 의미로 ‘手段’의 사전적 의미 ‘어떤 목

50) 金田一春彦(1992), 『日本語(上)』, 岩波新書, pp.179~180. ; 日本語では、どうも人間の体についても語彙が大ざっぱである。極端なのはテとアシで、hand(手)もarm(腕)も、日本人はテといい、foot(足)もleg(脚)も日本人はアシということである。

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말을 하거나 일을 다루어 처리하는 능력이나 숨
씨⁵¹⁾에서 알 수 있듯이 「手」가 쓰이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199) さすがにジョニーウォーカーだね。どこで手に入れたの (氷点-上 p.98)

(200) 恋人でも、手に入ってしまったら、どうもいうこともなくなるのね (続・氷点-下 p.22)

(201) 再び聖書を手にすると、やはり読んだころがなつかしく思い出された (氷点-下 p.8)

위의 예들은 「手」의 기본적인 기능인 잡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잡음
으로서 자신의 것으로 한다는 소유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202) イライラして気が狂いそうな時は手を休めて深く呼吸をした (キッチン p.81)

(203) いったいどれから手をつけて良いものかと、真次は考えた (地下鉄に乗って p.207)

(204) 高木さん、あんた、しろに手が廻るわよ (続・氷点-上 p.12)

(205) おまえの商売に手を貸すほど偉くないよ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52)

(206) おれ、誰の手も借らない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109)

(207) 病院も手が足らんもんで (うらばんえ p.210)

인간에게 「手」가 없다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 만큼 중요한 부분
으로 (202)는 일손의 멈춤, (203)은 일의 시작, (205), (206), (207)은 인력, 노
동력으로 「手」가 갖는 비유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은 手配의
의미를 낳아 (204)의 「手が廻る」는 ‘수배하다·체포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208) おだしでも、手をぬいたらすぐにわかってしまうでしょう (続・氷点-下 p.20)

(209) 何度も手をかけることだ。そこで愛情が生まれるのよ (続・氷点-上 p.315)

(210) そうというのが、一番手に負えないよ。弾力性がないからね (続・氷点-上 p.253)

51) 신기철·신용철 編著(1989),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p.1972.

(211) 僕ははとほと手を焼いていた (活動寫眞の女 p.77)

일본어에서 「手間」은 ‘일을 하는데 드는 시간이나 노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⁵²⁾. ‘수고·노력’은 일을 하는 데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208)은 수고, (209)는 노력, 고생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手」로 일을 함에 있어 추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210), (211)이 이러한 예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212) 女房も子供も学校だなんだで、とても手が放せないんだ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107)

(213) 四人の子らは順序よく、母の手を離れていった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44)

(214) 先代から手とり足とり何でも教わったやろ (オリオン座からの招待状 p.281)

(215) 女にも手を出さない、立派な聖人でありました (氷点-下 p.52)

(212)는 관계를 끊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일과 관련지어 본다면 「足を洗う」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213), (214)는 감독이나 돌보는 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인간관계·인간성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15)는 다정한 인간관계보다는 여자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 「手」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태도와 자세	거절·인사	1
	기원	1
방법·수단		4
소 유		3
일	일·작업	3
	일꾼·노동력	3
	수고·노력	2

52) 柳 岡 監修(1998), 「日韓大辞典」, 학력개발사, p.681.

힘·능력		2
인간관계		3
여자관계		1
		23

「手」는 신체부위의 다른 어느 것보다도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농경 사회라는 점에서 보면 일본어가 「手」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手」는 신체어휘 전체에서 보더라도 「日」에 이어 많은 관용표현을 가지고 있다.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외에도 「手」에는 솜씨(手が上がる), 관계(手が切れる), 속임수(手に乗る), 도벽(手が長い), 긴장감(手に汗を握る), 동맹(手を握る), 손을 뻗(手を引く), 일의 확장(手を広げる・手を延ばす), 기쁨(手の舞い足の踏む所を知らず)등 다양한 관용표현을 볼 수 있다. 수집한 자료에서도 볼 수 없었지만 「手」는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로는 그다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尻

「尻」는 신체부위로서는 허리 뒤쪽 아래 부분으로 신체상의 역할이나 기능에서 「尻」는 끝, 마지막, 끝씨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216) 少女は凍ったホームではね上がり、尻餅について笑った (鉄道員 p.28)

(217) おばちゃんが尻軽な女だと囁かれ仙波は恩を仇で返した盗ッ人だと噂されたのも無理はない
(オリオン座からの招待状 p.264)

(218) 文句もいわずにお前の尻ぬぐいをしてくれているようなものだ (続・氷点-下 p.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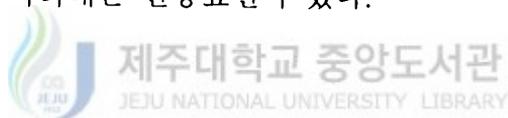
「尻」는 앉거나 일어나거나 하는 역할에서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에도 관련이 있는데, (217)은 행동이 지긋하지 못함·경박함의 의미를 가지며, (218)

은 신체상의 기능과 관련해서 뒷정리·뒤처리·뒷수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尻」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자 세		1
행 동	경박	1
뒤처리		1
		3

이 외에도 「尻」에는 정착, 지속(尻が暖まる・尻が据わる・尻を落ち着ける), 다급함(尻に火がつく), 격려(尻を叩く), 반항적 태도(尻をまくる), 다급함(尻に帆をかける)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5) 足

「足」의 신체상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몸을 지탱하는 것’과 ‘걷는 일’이다. 欧美에서는 발을 leg와 foot로 구별하여 사용하지만⁵³⁾ 일본은 「足」로 양쪽 모두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인은 「足」에 대한 의식이 欧美처럼 강하지는 않은 듯 하다.

(219) 四十になったら足を洗おうと思う (ラブ・レター p.51)

(220) この暗さに足をひっぱられながら生きていかなくてはいけないのは仕方ないが

(キッチン p.169)

「足を洗う」는 승려가 발을 씻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⁵⁴⁾, 바람직하

53) 金田一春彦(1992), 전계서, pp.179~180.

54) 三正銀行(1979), 「ことばの辞典(2)」,ダイヤモンド社, p.5.; 李成均(1986), “日・韓身体名の慣

지 않은 일을 그만두는 행위로 한국에서는 ‘손을 씻다’로 사용된다. 이와는 반대로 (220)의 경우는 뭔가 방해를 받아 빠져나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다.

(221) 母が死に、兄の一家が大阪に転居してしまっからは、生まれ故郷には足を向けていない
(オリオン座からの招待状 p.259)

(222) 離婚のことで札幌まで足を運ばせた時の礼をいった (続・氷点-上 p.167)

(223) 柵が立ち止まって見ているものに気づいてはと足を止めた (キッチン p.180)

(224) そうして、足のつかない所に行つて、死を待ったんだけと (ハネムーン p.139)

「足」은 걷기 위한 것, 움직이기 위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行く」 「移動する」의 의미를 가진다. (221), (222)는 의식적으로 발길을 돌리는 의미로 「足を向ける」은 도달점의 지향성, 「足を運ぶ」는 거기까지 스스로 향하는 경로에 의미의 중심이 있다⁵⁵⁾. (224)는 발길이 닿지 않는다고 하는 단서나 종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225) すれちがつた女性をふり返ると、途端に(あんなの陽子の足もとにも及ばないぜ)とくるんで
すからね
(氷点-下 p.151)

상대가 너무 훌륭하여 감히 다가가거나 비교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비유한 표현으로, 자신감·상대에 대한 우월감을 나타내며 「足元へも寄り付けぬ」라고도 표현한다.

用語句の対照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외대, p.95에서 재인용. ; この「足を洗う」の語原は仏教から出たもので、昔、インドで僧侶がハダシで托鉢して、その日の行を終わり、寺へ帰つて足を洗つて清め、信者を集めて法語をしたという習慣から出たことばだといわれます。

55) 宮地裕(1993), 전계서, P.21.

● 「足」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관계청산		1
방 해		1
걷는 일	발길 · 방향	3
단서 · 종적		1
우 열		1
		7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足」에는 관계·개입(足を入れる·足を抜く), 적자(足が出る), 피곤함(足が棒になる), 휴식(足を休める), 기다림(足を蹠げて待つ), 기쁨(足が地につかない)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6) すね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생산성이 적은 것이지만 「すねをかじる」는 일상화되어 사용빈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226) いや、まだ子供ですよ。おやじのすねをかじっていますから (続・氷点-上 p.33)

한국어로는 ‘없혀 살다’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자기 혼자서는 독립하지 못하고 원조를 받는 상태를 가리킨다.

● 「すね」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생활능력	기대 · 비독립	1
		1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すね」에는 빈곤함(すねから火を取る), 떳떳하지

못함(すねにきずを持つ)의 의미를 가지는 관용표현이 있는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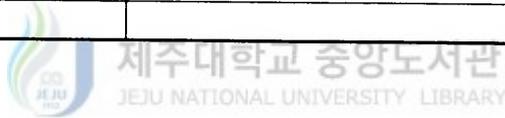
7) 踵

(227) けんか相手の女の子がくると踵を返し、小走りで逃げてしまった (TUGUMI p.158)

‘くびす’라고도 읽으며 발뒤꿈치를 원래대로 돌린다는 의미에서 발길의 의미로 사용된다.

● 「きびす」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발 길	1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踵」에는 연속(きびすを接する)의 의미를 갖는 관용표현이 있는 정도이다.

「頭部」 「胴体部」가 감정표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四肢部」에는 감정표현의 용례가 하나 뿐이다. 이것은 신체 外側의 특정 부위라는 점에서 감정표현과 관계가 깊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手・肩・足・尻・腕・すね・きびす」순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각 부위는 신체상의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란 「四肢」라는 문자에서 알 수 있듯이 손발과 관련된 것, 즉 움직임이나 동작의 기능과 밀접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4. 全身部

「全身部」에 속하는 신체어휘는 「頭部」 「四肢部」 「胴体部」 처럼 특정 부위나 기관이 아니라,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血」 「骨」 처럼 전신에 걸쳐 받아들여지는 성격이 것이나 혹은 「身」 처럼 신체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1) 身

「身」의 類義語에는 「身体」 「からだ」가 있는데 이 둘은 신체 혹은 육체를 의미하지만 「身」의 경우는 육체는 물론 추상적,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228) すでに青い手術衣に身を固めた医師たちはどれも若い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274)

(229) 自分のことに言葉を振られて、安男は身をかわした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198)

(230) 身をまかせるのは、まず思いきり緊張して、息をつめて (ハチ公の最後の恋人 p.62)

『広辞苑』에서 「身」를 보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⁵⁶⁾. 위의 예는 준비를 위한, 피하기 위한 눈에 보이는 「体」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30)의 경우도 상대의 의지에 맡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역시 ‘몸을 허락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体」를 가리키고 있다.

(231) 身のほど知らずに、大きな問題をかかえこんでしまったことを悔いた (氷点-上 p.176)

(232) ちっともわたくしの身になってくれないんですもの、ひどいわ (続・氷点-上 p.33)

(233) そう言われると身も蓋もないね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137)

(234) やはり机と椅子でなければ、お勉強にも身が入りませんか (悪魔 p.96)

(235) こっちから身を引くなんて、納得できないよ (うらぼんえ p.227)

56) 新村出 編(1995), 전계서, p.2439. ; ①からだ. 身体. ②自身. 自分. ③自分. 私自分. ④身分. 分際. 地位. ⑤その人の立場. ⑥その人の生き方. ⑦人の全力. まごころ. ⑧(皮・骨に対して)肉. しらむ. ⑨竹・木の皮の内部. ⑩さやの中の刃. ⑪蓋のある物器の、物を入れる方.

(236) 私、どうしても身に覚えがないの(地下鉄に乗って p.243)

(237) 親切さをどちらも自然に身につけていた(キッチン p.161)

(238) 恵子君だって、いわば身から出たサビのようなものだしな(続・氷点-上 p.197)

앞에서도 밝혔듯이 「身」에는 실로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다. 눈에 보이는 '신체·육체'의 의미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관련된 부수적인 의미, 추상적인 의미, 암시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위의 예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233)의 경우는 「(器)の身がない」에 「(器)のふた」를 더한 표현으로⁵⁷⁾ 아무런 가치, 실속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36), (237)은 「身」을 하나의 몸체를 가진 자기자신에 비유한 표현이다. (238)은 자신이 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 영향이 자신에게 미치는 경우에 비유되어 사용되는 표현으로, 영향이란 불운·불행 등 마이너스적인 것을 가리킨다.



(239) 夏枝は啓造の怒りや、口惜しさが身にしみてわかった(氷点-上 p.221)

(240) 会社の看板が見えたあたりで、最も身にこたえた言葉が甦った

(天国までの百マイル p.132)

(241) ちえ子はやり場のない怒りで身を慄かせた(うらぼんえ p.219)

(242) もっと身の切れるような思いをするものと思っていたけれど(ハチ公の最後の恋人 p.119)

「身」에는 기쁨, 감동, 부끄러움보다는 슬픔, 괴로움 등의 감정을 온 몸으로 느끼며 표현하고 있는데 「顔」 「胸」 등이 다양한 감정의 표현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표현들이 제한되어 있는 듯 하다.

- 「身」에 대한 의미분석

57) 白石大二 編(1988), 전계서, p.424.

의 미		수
태도와 자세	준비	1
	위험을 피함	1
	노력·정성	1
	육체관계	1
입장·처지		2
내용·실속		1
관계청산		1
자기자신		2
자업자득		1
감 정	미안함	2
	두려움·공포	1
	괴로움	1
		15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身」에는 동정(身につまされる), 출산(身二になる), 타락·방탕(身を誤る・身を売る・身を持ち崩す), 일치(身を合わす), 괴로움(身を削る・身を焦がす), 희생(身を粉にする・身を挺する), 출세(身を立てる), 자살(身を投げる)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2) 骨

「骨」은 신체의 특정부위나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에 걸쳐있는 조직의 총칭으로, 몸의 중심이 있는 곳으로 인간의 신체 중 중요한 부분이다.

(243) いわば専門職で、歴代の支店長はみな任地に骨をうずめている (角筈にて p.125)

(244) 駐車場から入口まで運ぶのにも骨が折れた (キッチン p.84)

(245) みんなが、骨の髄までのカツドウ屋やったんやから (活動寫眞の女 p.165)

(243)은 일생을 한 곳에서 지내거나 한 회사, 일에 일생을 바치는 것, (244) 또한 심한 고생을 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에 대해 열정이 있고 고생·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몸의 중심을 이루는 「骨」가 인간의 정신적인 신념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⁵⁸⁾. (245) 역시 마음의 심오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骨」에 대한 의미분석

의 미		수
일	열정·희생	1
	고생·수고	1
마음		1
		3

수집한 용례에는 없지만 이 외에도 「骨」에는 노력·수고(骨を惜しむ·骨を盗む), 마음(骨に徹する), 죽음(骨が舍利になっても), 여윌(骨と皮), 이용(骨までしゃぶる), 고통(骨身を削る)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全身部」는 신체어휘 분류상으로 1차적인 것 중, 전체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수집한 용례에는 「身·骨」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身」에 관한 표현은 감정은 물론 실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骨」은 특정한 부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그 외의 신체어휘 관용구

앞에서 「頭部」 「胴体部」 「四肢部」 「全身部」로 분류하여 수집한 용례에 나타난 신체어휘 관용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용례를 수집한 12권 소설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신체어휘 관용구 전부가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

58) 立川昭二(2000), 전제서, p.12.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설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頭部」 「胴体部」 「四肢部」 「全身部」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国語慣用句大辞典』 『広辞苑』에 나타나있는 것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소개하기로 하겠다.

1) 頭部

「頭部」에서 수집한 용례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髪」 「つむじ」 「額」 「ほお」 「ひげ」 「あご」 「喉」이다. 여기에는 출가(髪をおろす), 심술(つむじをげる), 분노(ほおをふくらます), 의논(額を集める), 노력(額に汗する), 아침·아부(ひげのちりを払う), 거만(ひげを食い反らす·あごであしらう·あごで使う·あごで撫でる), 예상(あごが食いちがう), 식욕(ほおが落ちそう·あごが落ちる·喉が鳴る·喉を干す), 웃음(あごを外す), 생계(あごが干あがる), 피곤(あごを出す), 체력(あごであえを追う), 욕망(喉から手が出る)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2) 胴体部

「胴体部」에서 수집한 용례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心臟」 「肺腑」 「胃」 「腸」이다. 여기에는 배짱(心臟が強い), 뻥뻥함(心臟に毛が生える), 핵심(肺腑を突く), 슬픔(腸を断つ·腸がちぎれる), 본심(腸が腐さる), 분노(腸が煮えくり返る)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3) 四肢部

「四肢部」에서 수집한 용례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ひじ」 「指」 「爪」 「掌」 「股」 「ひざ」이다. 여기에는 거절(ひじを食う), 뻥뻥함(ひじを張る), 청빈(ひじを曲げる), 기다림(指を折る), 욕망(指をくわえる), 험담(指を差す), 맹세(指を詰める·指を切る), 낭비(爪で拾ってみてこぼす), 인색(爪に火をともす), 야심

(爪を研ぐ), 부끄러움(爪食う), 재능(爪を隠す), 태도(掌を返す), 희생(股を裂いて腹を満たす), 의논(ひざとも談合), 굴복(ひざを折る), 앉는 자세(ひざを崩す・ひざを組む・ひざを正す), 환담(ひざを交える)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4) 全身部

「全身部」에서 수집한 용례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血」인데, 「血」는 다양한 의미의 관용구를 가지고 있고 그 수 또한 적지 않다. 여기에는 인간미(血が通う・血も涙もない), 흥분(血湧き肉おどる・血が騒ぐ), 분노(血が上る), 다툼(血で血を洗う・血を見る), 슬픔(血の涙・血を啼く), 노력(血が出るよう・血と汗の結晶), 혈육(血は水より濃い・血を引く・血を分ける), 혈기(血の気が多い・血が沸く), 맹세(血をすする)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 있다. 「血」은 감정의 표현과 관련하여 슬픔, 분노 등 인간의 고통이나 비애, 공포 등과 관계가 깊고 기쁨, 즐거움을 나타내는 표현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일본어 학습에 있어 학습자들이 실제 생활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표현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좀 더 나은 관용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체부위를 크게 「頭部」 「胴体部」 「四肢部」 「全身部」로 나누고 그 용례를 현대소설에서 수집하여 신체어휘 관용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고찰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관용구란 2개 이상의 단어의 연결체이고 그 결합이 비교적 고정되어 전체적으로서 어떤 고정된 의미를 가진 말이라 정의할 수 있다. 관용구는 그 민족이 장기간에 걸친 언어 생활에서 의미의 전성, 농축과생을 거듭하며 정착된 것이므로 이해에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일본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관용구 학습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관용구는 일상 생활 속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고, 좀 더 풍부한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언어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관용구 중 특히 신체어휘에 의한 것이 양적인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구대상에서 밝혔듯이 현대 소설에서 수집한 신체어휘 관용구의 용례 수와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 어휘	수	비율(%)		신체 어휘	수	비율(%)
頭部	頭	7	2.8	胴体部	腰	6	2.4
	顔	27	10.8		背	2	0.8
	眉	4	1.6		臍	1	0.4
	目	55	22		肝	1	0.4

頭部	耳	15	6	四肢部	肩	9	3.6
	鼻	3	1.2		腕	1	0.4
	口	16	6.4		手	23	9.2
	唇	1	0.4		尻	3	1.2
	舌	2	0.8		足	7	2.8
	齒	5	2		踵	1	0.4
	首	2	0.8		すね	1	0.4
胴体部	胸	30	12	全身部	身	15	6
	腹	10	4		骨	3	1.2
합계		177		합계		73	

총250개의 수집한 용례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체어휘 관용구는 단순히 신체부위의 기능이나 활동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비유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頭部」 「胴体部」 「四肢部」 「全身部」로 나눈 신체어휘 관용구에 어느 부위가 속하며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頭部」는 인간의 사고나 감정 등을 지배하는 주요한 감각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頭·顔·眉·目·耳·鼻·口·唇·舌·齒·首」의 11개 항목이 54.8%(137개)를 차지하고 있다. 「頭部」가 차지하는 신체어휘 관용구가 많다는 사실은 관용구 중에서도 생산적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胴体部」는 신체부위가 신체의 겉면에 위치해 있는 「頭部」와는 달리 신체의 내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胸·腹·腰·背·臍·肝」의 6개 항목이 20%(50개)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胸」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풍부한 용례를 보여주고 있음은 물론 표현이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四肢部」의 「四肢」는 문자 그대로 「手」와 「足」과 관련이 깊은 부

분이라는 점에서, 신체상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은 움직임이나 동작의 기능과 밀접하고, 감정의 표현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肩・腕・手・尻・足・踵・すね」의 7개 항목이 18%(45개)를 차지하고 있다.

「全身部」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체의 특정 부위라기 보다는 전신에 걸친 성격이 것이나 신체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身・骨」의 2개 항목이 7.2%(18개)를 차지하고 있다. 동작이나 움직임과는 관련성이 적고, 인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頭部」 「胴体部」 「四肢部」 「全身部」의 順으로 많은 신체어휘 관용구를 볼 수 있는데, 「頭部」 「四肢部」가 전체의 72.8%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신체의 내부 기관보다는 외부 부위가 기능이나 역할에서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집한 용례의 분석에 있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감정표현인데 총250개 중 81개, 즉 전체의 32.4%나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를 「頭部」 「胴体部」 「四肢部」 「全身部」 별로 살펴보면, 각각 45개, 31개, 1개, 4개가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감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크게 10개의 감정표현과 기타표현(비웃음·경멸, 억울함·분함, 미안함)으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기쁨· 기대	目	目を輝かす	불쾌· 불만	顔	顔をしかめる
	胸	胸をおどらせる			いやな顔をする
		胸がときめく			しぶい顔をする
		胸が熱くなる			顔をそむける
		胸が高鳴る			眉をよせる
		胸のつかえがおりる			眉をひそめる
	肩	肩の荷がおりる		眉を震らせる	

감탄 · 감동	目	目を奪う	불쾌 · 불만	目	目に障る		
		目を細める		耳	耳にタコができる		
		目を見張る		耳	耳に障る		
	胸	胸にひびく		口	口を尖らせる		
胸がいっぱいになる		舌		舌打ちをする			
胸を打つ		胸		胸が悪い			
놀람	目	日が丸くする		걱정 · 불안	顔	胸くそが悪い	
		日が覚る				顔を震らせる	
		日を見ひらく				浮かぬ顔する	
		日をまわす				しんき臭い顔	
	耳	耳を疑う	胸		思案顔		
		耳を打つ			胸がとどろく		
	胸	胸が波立つ	胸がさわぐ				
胸を打たれる		頭	頭をかかえる				
腰が抜ける		耳	耳をふさぐ				
부끄러움 · 쑥스러움	頭	頭をかく	피로움	胸	胸につきさがる		
	顔	顔を赤くする			胸が痛む		
		顔を赤らめる			胸が苦しい		
	目	目を伏せる			胸がつまる		
口	口をおおう	胸をさす					
분노 · 노여움	頭	頭に来る			슬픔	身	胸が切り裂く
	顔	顔がこわばる					身
	目	目がすわる	顔	顔が震る			
	唇	唇をかむ	目	目がうるむ			
	胸	胸につかえる	비웃음 · 경멸	胸		胸にしみる	
		腹				腹が立つ	胸がつぶれる
	腹を立てる	身				胸かつかれる	
顔が青ざめる	胸にせまる						
두려움 · 공포	顔	顔をゆがめる	鼻	鼻を鳴らす			
		歯の根が合わず		鼻でわらう			
	背	背筋が寒くなる	腹	腹をかかえる			
	身	身をふるわす		歯	歯を食いしばる		
미안함	身	身にしみる	齒	齒をかみしめる			
		身にこたえる					

신체어휘를 사용한 관용표현은 다양한 비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사회적·역사적 배경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즉 같은 신체

어휘를 사용하더라도 언어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감정표현의 경우가 이러한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신체어휘관용구의 개념과 특징, 일본현대소설에 나타난 신체어휘 관용구의 용례 분석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 일본현대소설과 한국어의 번역본으로 韓·日語의 비교·대조와 함께 그 배경에 존재하는 두 나라 국민의 표현법의 고찰을 다음의 연구과제로 하고자 한다.



参 考 文 献

1. 韓国文献

【単行本】

金人圭(1999), 「일본어 관용어휘」, 동양문고.

【論文】

權益湖(1997), “「目」に関する身体語彙の慣用語, -現代小説を中心に-”, 『일본연구』 제12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____ (1999), “「腹・胸」に関する韓日慣用語表現, -日本現代小説を中心に-”, 『일본연구』 제14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____ (2000), “「顔」に関する身体語彙の韓日比較”, 『일본연구』 제15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金相敏(1997), “韓・日語 対応 慣用語句 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외대 대학원.

小林雅明(1994), “韓日 兩語 身体關聯 熟語의 比較研究”,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李成均(1986), “日・韓身体名の慣用語句の対照研究, -日・韓初・中・高国語教科書を中心として-”, 석사학위논문, 한국외대 대학원.

林八龍(1988), “日・韓身体語彙慣用語句の比較対照のための基礎研究”, 『한국외대 논문집』 제21집.

____ (1998), “日・韓身体語彙慣用語句の対照考察Ⅰ, -「頭部」を中心として-”, 『일본연구』 제13호, 한국외대외국어종합센터 일본연구소.

____ (1999), “日・韓身体語彙慣用語句の対照考察Ⅱ, -「胴体部」を中心として

- ”, 『한국외대 논문집』 제31집.
- _____ (2000), “日・韓身体語彙慣用句の対照考察Ⅲ, - 「四肢部」と「全身部」を中心として-, 『한국외대 논문집』 제32집.
- 장세경·장경희(1994), “국어 관용어에 관한 연구, - 정서표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25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洪思滿(1992), “韓・日語慣用的表現의 対照研究, -身体語의 多義構造 比較를 中心으로-”, 『정철교수화갑기념호』, 경북어문학회.
- 黄貞源(1991), “日本語慣用句 構造에 대한 研究, -신체부위별 관용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 교육대학원.

【辞典類】

- 신기철·신용철 編著(1989),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 柳呈 監修(1998), 『日韓大辞典』, 학력개발사.
-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 사전』, 어문각.

2. 日本文献

【単行本】

- 金田一春彦(1992), 『日本語(上)』, 岩波新書.
- _____ (1992), 『日本語(下)』, 岩波新書.
- 現代言語セミナー(1997), 『似て非なる言いまわし』, 東洋經濟新聞社.
- 塩田丸男(1998), 『人体表現読本』, 白水社.
- 鈴木孝夫(1992), 『ことばと文化』, 岩波書店.
- 立川昭二(2000), 『からだことば』, 早川書房.
- 秦恒平(1984), 『からだ言葉の本』, 筑摩書房.

宮地 裕(1993), 『慣用句の意味と用法』, 明治書院.

渡辺吉鎔(1998), 『韓国言語風景』, 岩波新書.

【論文】

アグス スヘルマン スルヤディムリア(1999), “日本語・インドネシア語における体語彙
慣用句の比較研究”, 『日本語論究』6, 和泉書院.

石野博史(1989), “身体に関する慣用表現”, 『日本語教育』33号, 明治書院.

禹京淑(1983), “現代日本語の慣用的表現語句の研究 - 韓国における日本語教育
の立場から”, 碩士学位論文, 筑波大学大学院.

大月実(1987), “慣用句にあらわれた身体”, 『言語生活』2月号 No.423, 筑摩書
房.

阪田雪子(1985), “日本語教育における慣用句”, 『日本語学』1月号 VOL.4, 明
治書院.

高木一彦(1978), “慣用句研究のために”, 『日本語研究の方法』, むぎ書房.

中村 明(1977), “比喩の中の日本人”, 『日本語と文化・社会3 ことばと文化』, 三
省堂.

_____ (1977), “語の意味と固定連語の扱い”, 『日本語教育』33号, 明治書院.

_____ (1985), “慣用句と比喩表現”, 『日本語学』1月号 VOL.4, 明治書院.

星野命(1976), “身体語彙による表現”, 『日本語講座第四巻 日本語の語彙と表
現』, 大修館.

宮地敦子(1987), “身体語研究の視界”, 『言語生活』2月号 No.423, 筑摩書房.

村木新次郎(1985), “慣用句・機能動詞結合・自由な語結合”, 『日本語学』1月
号 VOL.4, 明治書院.

横山辰次(1975), “国語の慣用句”, 『覆刻文化庁国語シリーズⅧ 語原・慣用語』,
教育出版.

吉田則夫(1996), “身体語彙による表現”, 『言語学林 1995~1996』, 三省堂.

【辞典類】

国語学会(1982), 『国語学大辞典』, 東京堂出版.

三省堂編修所(1991), 『広辞林』, 三省堂.

集英社辞典編集部(1991), 『ルーツでなるほど慣用句辞典』, 集英社.

白石大二(1988), 『国語慣用句大辞典』, 東京堂出版.

新村 出 編(1995), 『広辞苑』, 岩波書店.

日本語教育学会(1982), 『日本語教育辞典』, 大修館書店.

吉田精一・薬師寺章明(1979), 『暮らしの中の国語慣用句辞典』, 集英社.



〈Abstract〉

**A Review on an Japanese Idiom of Body Vocabulary
-centering on the modern novel-**

Kim, Kyung-Deok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ee, Chang-Ik

In learning Japanese, generally the knowledge of pronunciation, grammar, and vocabulary is emphasized. However, with only this knowledge, it is not sufficient to understand conversation, drama, and movie, and to read novel and essay. The reason is it is not in the dictionary, or even if it is in the dictionary, it often happens that we do not know how it is interpreted into appropriate meaning. Most of these expressions are an idiom.

This study aimed at understanding a appropriate idiom, and helping the improvement of expressive ability in the communication of real-life situation of Japanese learners. Dividing idiom related to a body appeared in modern novel into <part of head>, <part of intestines>, <part of leg and hand>, and <part of whole body>, it reviewed the meaning of examples.

Especially, body vocabulary among idioms took lots of part in the quantity. Considering total 250 collected examples, body vocabulary showed the inner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1.

world like emotion of human with a metaphor, as well as the activity or function of a part of body.

<A part of head> is main sense organs which control thinking and emotion of human.. Considering many expressions used with it, we can know it is productive and important position among idioms.

Because <a part of intestines> is located in the inner of body, express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emotion state of mind of human.

The function and the role in the body of <a part of leg and hand> like letters are closely related to the movement or function of actions. It has little relation with expressions of emotion.

Because <a part of whole body> is the characteristic of whole body or body itself rather than the specific parts of body, it has relation with expressions about complicated and delicate state of mind of human.

Especially in case of expression of emotion, it took 32.4%, which showed idiom expressions using body vocabulary had various metaphor, and close relation with the various emotion of human.

Among idioms classified variously, though the subject of study was limited to an idiom of body vocabulary, it w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easily an idiom which can be a difficult factor in learning Japanese.